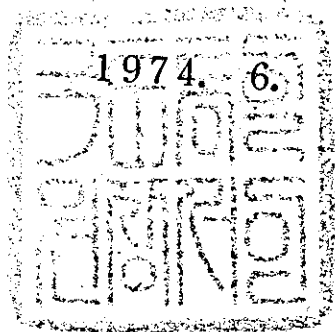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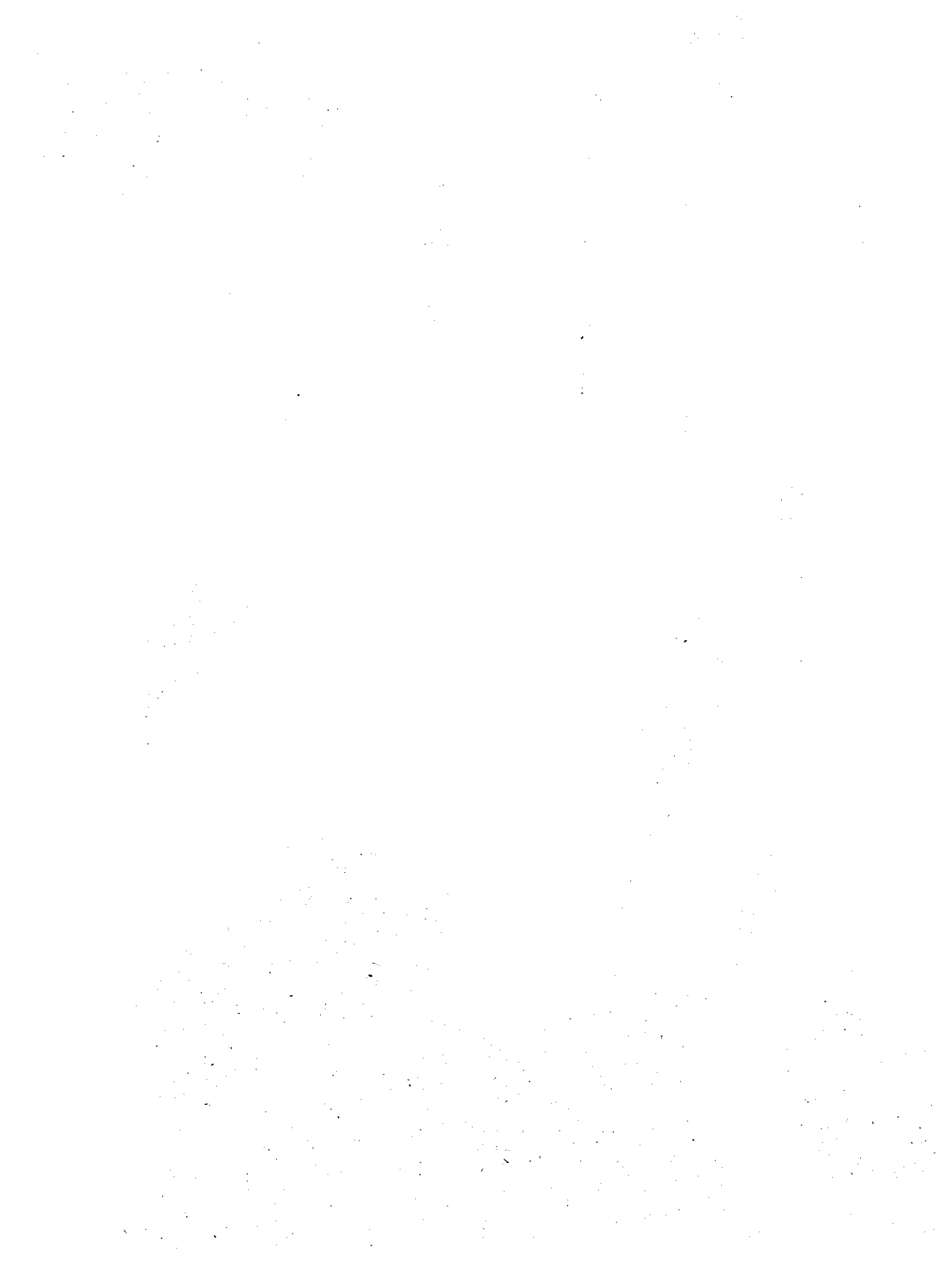


우리의 統一政策과 그 實踐으로서의  
南北對話



國 土 統 一 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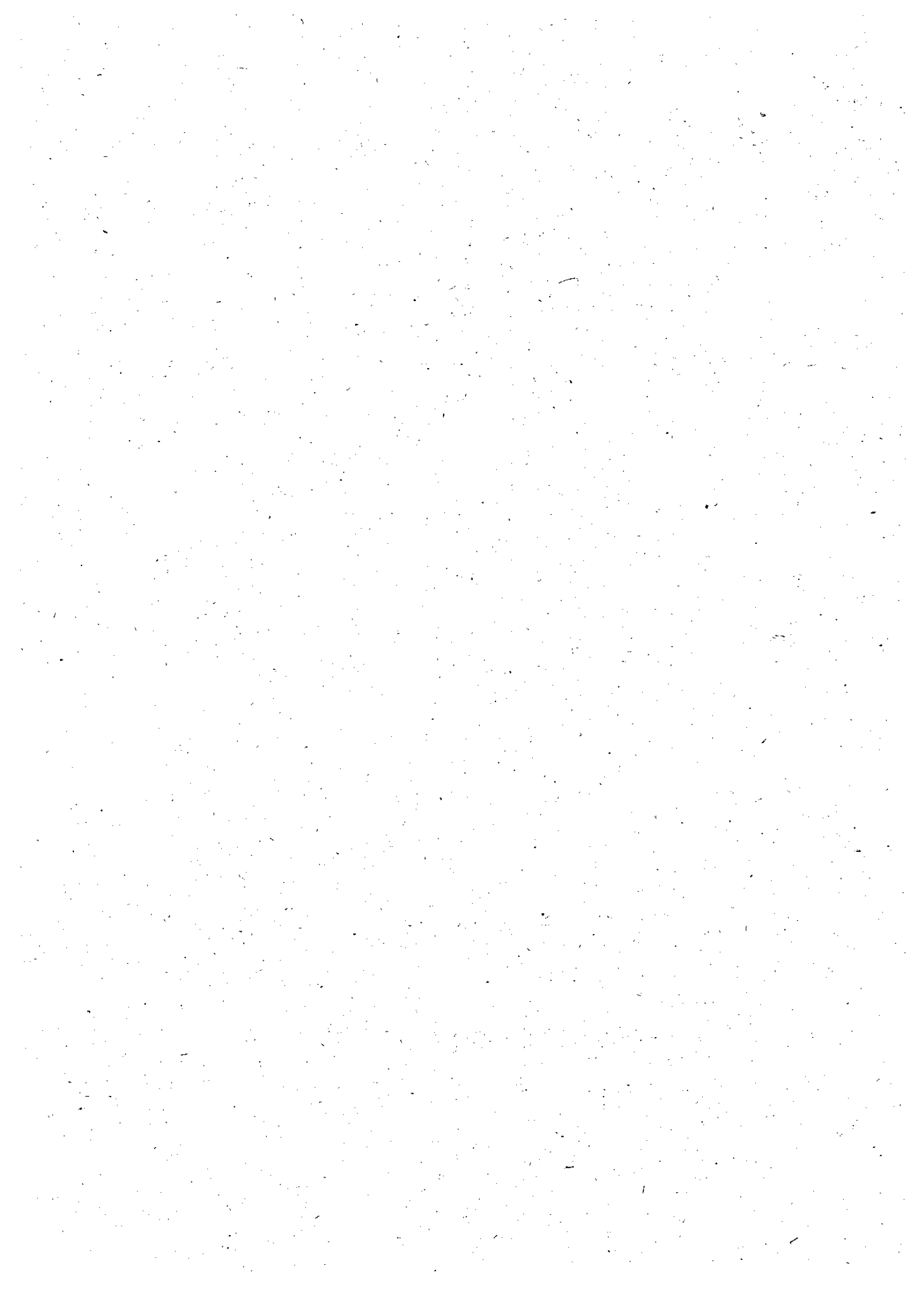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6.

研究機關：釜山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所長 夫 雲 鳳



## 머 리 말

本原稿는 3部로 編成되어 있는데 第1部에 該當하는 第1章에서 第3章까지는 그 結果를 本校에서 發表한바 있으며 이로써 統一問題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共感을 얻었다. 그리고 2部에서 그 理論的 뒷받침, 3部에서 南北對話를 다루었는데 1部는 發表를 爲한 國語體로 構成되어 있다. 이 點 參考로 摘記해 둔다.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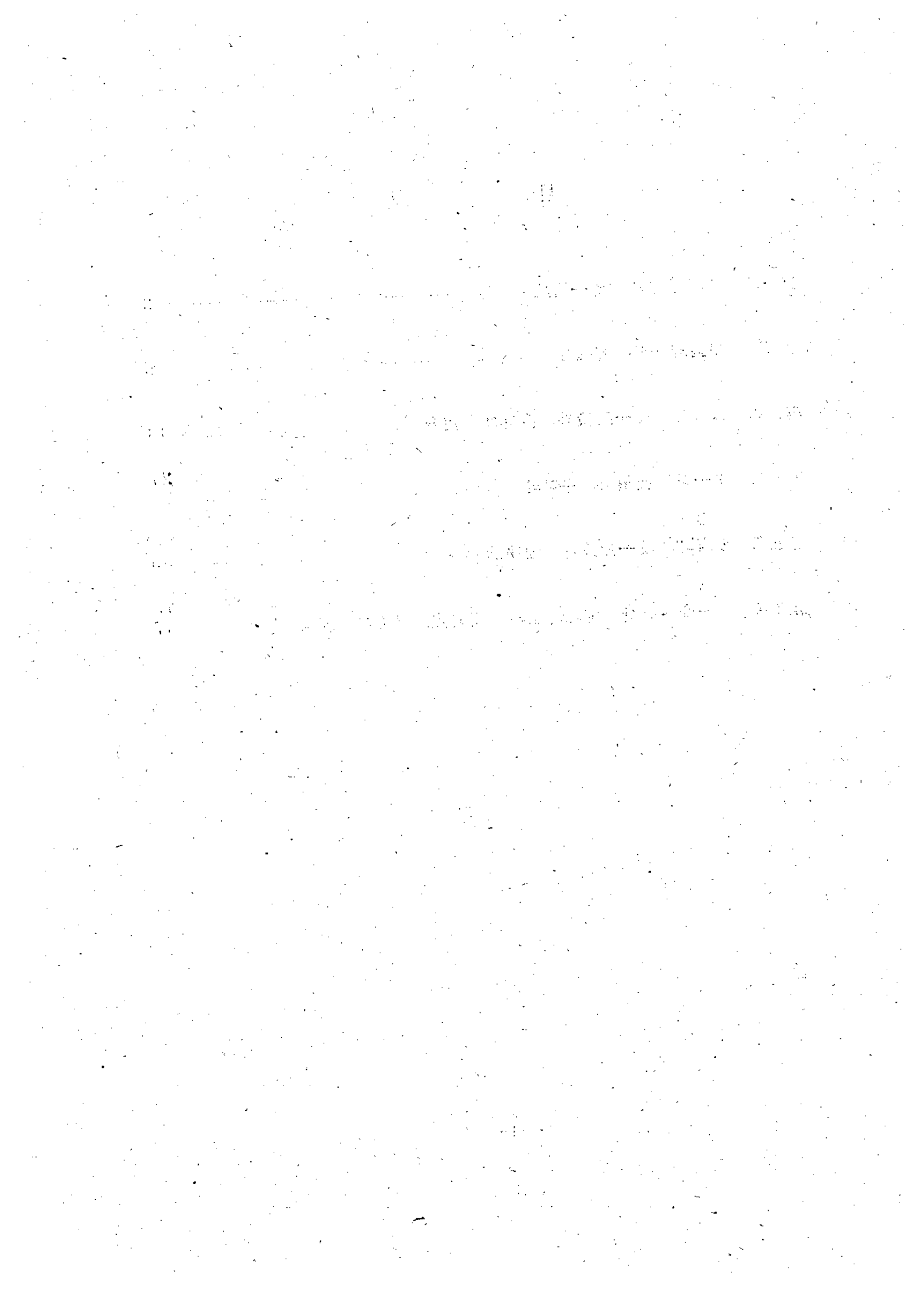
1970

1971

1972

## 目 次

第一章	分断国家와 統一問題	3
第二章	韓國統一의 特殊性	6
第三章	政府의 統一政策과 우리의 使命	16
第四章	統一의 展望과 우리의 使命	27
第五章	政府의 統一政策의 理論的考察	35
第六章	統一을 위한 南北對話와 問題点 및 그 展望	47





## 第一章 分断国家和 統一問題

오늘날 地球上에는 4 個의 分断국이 存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分断국을 大別하면 3 個의 類型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即,

첫째는 東西獨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國際型」 分断国家로서, 分断이 國民들이 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強大국의 政策이나 利害關係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換言하면 自意에서가 아니라 他意에 의하여 分断이 強要된 경우이고,

둘째는 中共과 自由中國과 같은 「國內型」 分断国家로서, 分断이 内部革命이나 同族相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이며,

셋째는 越南과 같은 「混合型」 分断国家로써 처음에는 國內型에 屬하다가 다음에 國際的 介入이 이루어진 경우등 입니다.

이러한 分断国家들은 또 自由國家 優勢分断國, 共產國家 優勢分断國, 相互勢力比等 分断國으로 分類할 수 있는바, 西獨은 自由國家 優勢分断國이며, 中共은 共產國家 優勢分断國이고, 越南은 相互勢力比等 分断國에 屬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國際型」 分断國家에 屬하는 獨逸과 우리나라의 共通點과 相異點이 무엇인가를 比較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國際型」 分断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當事者間의 統一을 위한 努力과 이를 뒷받침하는 強大國들의 理解와 協力, 即 內的要素와 外的要素의 調和없이는 統一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點입니다

이제 独逸과 우리나라의 与件을 概括的으로 比較해 보면, 먼저 共通点으로는

첫째로 分断의 時期가 각기 第2次大戦 直後라는 点과

둘째로 이데올로기 面에서 自由와 共產主義로 각기 對立하고 있다는 点

셋째로 각기 強力한 軍事力을 維持하고 있으면서 兩陣營의 強大國家와 同盟關係를 維持하고 있다는 点

네째로 統一成就의 時期가 각기 遼遠한 立場에 있다는 点 等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相異点으로는

첫째로 分断의 背景面에서 볼때 独逸은 統一이 成就될 경우 超強大國이 됨으로써 周辺諸國에 커다란 威脅으로 作用하는데 反하여, 韓國의 경우는 国力이 弱少하여 蘇聯이나 中共이나 日本에 對해 威脅的인 存在가 될 수 없다는 点이며,

둘째는 統一國家 形成의 歷史面에서 볼때 独逸은 1871年「비스마르크」에 依한 統一國家形成으로 부터 不過 100餘年 밖에 되지 않음에 比하여, 우리는 西紀 668年 新羅文武王때 金尤新이 三國을 統一한 以後 1,300餘年에 이르고 있다는 点이고

셋째는 國際的·側面에서 볼때 独逸의 경우는 分断을 永久化시키자는 4大國의 利害가 一致되고 있는데 比하여, 우리의 경우는 4大強大國間의 不安定한 勢力關係下에 놓여있다는 点이며,

마지막으로 當事者間의 相互關係面에서 볼때 東獨은 戰爭意思를

拋棄한데 比하여, 北韓은 戰爭挑発 意思를 繼續 堅持하고 있다는 點 等 많은 差異點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장 重要한 差異點은 우리는 北韓의 6.25 挑発로 軍人을 除外한 民間人의 被害만도 100餘萬名에 達하는 同族相殘과 그리고 不斷한 直接·間接 侵略으로 100萬大軍이 20餘年間이나 相互 對峙하므로써 歷史上 일찌기 類例를 찾아 볼수 없는 休戰狀 態下에 있는데 比하여, 獨逸의 경우는 相互 直接的인 衝突없이 一 民族 二國家의 立場에서 基本條約을 締結하여 相互代表部를 交換設 置하고 있다는 點이라 하겠습니다.

## 第二章 韓國統一의 特殊性

韓國統一의 特殊性은 첫째로 持續的이고 緊密한 UN 과의 關係, 둘째로 韓國을 위요한 國際情勢의 特殊性, 셋째로 世界에서 類例를 찾아 볼수 없는 好戰的이며 劃一的인 北韓共産党的 实体에 있다는 事實입니다.

먼저 UN 과의 關係를 보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47年 第2次 UN 總會에서 全韓半島에 自由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 獨立된 民主政府를 樹立할 것을 決議한데 이어, 1948年 第3次總會에서는 大韓民國을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 承認하였으며, 그後 70年代 初盤까지 每年 總會決議로써 統韓原則을 계속 再確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動亂 때에는 UN 創設以來 全無後無한 安保理事會 決議에 依拠 16個國으로 構成된 UN 軍을 派遣하는 등 特殊한 關係를 維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UN의 情勢도 많이 變化되었습니다. 第2次 世界大戰後 強大國의 主導下에 51個國으로 出發한 UN은, 1960年代에 들어와서 100個國으로, 現在는 135個國으로 會員國數가 크게 增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創設初期에는 美·蘇 等 強大國의 絶對的인 影響力이 行使되어 왔으나 現在는 아시아, 中東,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等 第3勢力을 指向하는 國家群이 會員國總數의 過半數를 넘는 74個國에 이르고 있습니다. UN은 一國一票制에 依하여 維持되는 國

際的인 代議機構이기때문에 만약 이들의 票數를 모을 수 있다면 뉴욕에 있는 UN 本部를 他國家나 地域으로 옮기는 決定까지도 할 수 있는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UN의 性格도 크게 變貌하였습니다. 즉 UN은 그 創設目的이 國際紛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하고 各國의 主權과 獨立을 保全하는데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越南戰, 印度·파키스탄紛爭, 中東戰爭 등의 解決을 UN 安保理事會 또는 總회의 決定이나 勸告에 의해 解決짓지 못하고 UN 테두리 밖에서 解決하려는 傾向이 陽性化되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바와 같습니다.

이밖에도 유럽의 安全과 平和維持에 必要한 유럽安保協力會議나 人類平和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戰略核武器制限會談도 當事國들이나 美·蘇 兩國에 依하여 直接 解決하는 方式을 取함으로써 UN의 平和維持와 紛爭의 解決 等 政治的 機能은 거의 마비되고 오늘날 UN 總회가 다루는 重要한 問題는 大氣汚染防止 等 人間의 環境 改善을 위한 社會文化的 機能과 後進國 開發을 위한 經濟的 支援이나 通商開發 等 經濟的分野 即 非政治的 機能에 偏重되고 있어 設置當初의 目的과는 判異한 性格으로 變貌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UN 情勢의 變化에 따라 과연 우리의 統一問題를 UN에 依存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狀態에 處한 것입니다.

이러한 UN 情勢와 아울러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情勢도 冷戰時代 보다는 큰 變化를 가져 왔습니다. 冷戰時代의 韓半島 周邊情勢는 蘇聯, 中共, 北韓의 軍事同盟을 主軸으로 한 三角關係와, 韓國과 美

國의 相互防衛條約 그리고 美國과 日本의 安保條約에 依한 雙務關係로 明確히 区分되어 兩陣營間에는 相互 敵對關係로 있었으나, 現在의 緊張緩和 時代に 와서는 實利爲主의 内部結束 弛緩 乃至는 새로운 相衡關係로 크게 變하였읍니다.

即 陣營内部에 있어서 中·蘇는 理念과 領土紛爭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美·日은 通商·資源 및 市場開拓問題로 實利爲主의 熾烈한 經濟的競爭을 벌이고 있어 <貿易戰爭>이라는 말로 表現되고 있을 程度입니다. 그리고 陣營 相互間에 있어서도 커다란 變化를 보이고 있습니다.

即, 美·蘇의 密接한 接近은 兩國間의 平和共存關係로 實際化·具體化 되어 가고 있음은 말할것도 없고, 日·蘇關係도 시베리아開闢에 있어 17億弗의 日本投資가 相談되는 등 經濟的 協力關係로 進展되어 가고 있으며, 日·中共關係도 大使를 交換하는 國交正常化가 이미 이루어 졌고, 美·中共도 兩國間의 相互連絡事務所를 設置하는 등 크게 變化를 가져왔읍니다.

以上와 같이 우리를 圍繞한 UN 情勢나 周邊情勢가 크게 變化하고 있는 外에도 우리는 内部的으로 好戰的이며 劃一的인 北韓共產主義者와 統一問題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特殊한 立場에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3大力量 強化에 依하여 南韓革命을 爲한 決定的 時期를 造成, 窮極的으로 赤化統一 目標을 實現하려는 北韓의 政治·社會·經濟·軍事等 諸分野의 實態를 먼저 簡單히 살펴 보겠습니다.

干先 政治·社会面의 実態는 한마디로, 4半世紀동안 無數한 宗派 鬭爭과 內의 肅清을 通한 金日成 1人 独裁體制를 構築 이를 強化하고 維持하기 爲한 金日成 族閥政治로 要約할 수 있습니다.

即 新憲法에서 金日成 自身이 主席이 되어 党權과 政權을 한 손에 쥐고 이것도 不足하여 親同生인 金英柱를 中央党 組織指導部長과 政治委員兼 組織擔當秘書로 登用시켰고, 外戚인 楊亨燮을 政治委員會 候補委員과 秘書局 思想擔當秘書兼 党中央委員으로 任命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執行部屬인 政務院에도 外從祖父인 康良煜을 副主席으로, 四寸妹夫人 許淡을 副總理兼 外交部長으로 앉혀 政務院 實權을 掌握케 하였으며, 더우기 金日成의 妻인 金聖愛를 女性同盟 委員長으로, 4寸누이 金貞淑을 社勞青 副委員長으로 登用하였으며, 또한 金日成 自身の 身辺을 保護하기 爲하여 그의 아들 金修羅를 警護責任者로 앉혀 反對分子들을 查察除去하는 實權도 行使케 하고 있습니다.

北韓이 金日成 一党 独裁強化와 唯一思想 鼓吹에 얼마나 全力을 傾注하고 있는지 그들의 政治思想 教育實態를 통해 살펴보면, 旧憲法에서는 一般教育에 關한 2個條項만을 두고 있었으나 新憲法에서는 政治思想教育에 關한 規定만도 7個條項이나 新設, 大幅強化 시켰읍니다.

即 2條에서는 全體人民의 思想的統一, 11條에서는 思想革命的 強化 등을 規定하면서 思想教育을 憲法에 依하여 他事業에 優先시

키고 있으며, 教育内容에 있어서도 金日成 偶像化를 더욱 強化하여 72年度の 56%에서 73年度에는 74%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特徵은 現行 北韓教科書를 보더라도 充分히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昨年 4月 臨津江에서 拾得한 73年度 人民學教 1學年 教科書를 分析해 본 結果, 金日成 偶像化 内容이 「글씨」와 「算數」科目에 70%以上, 「音樂」「國語」「道德」, 「圖畫」科目에도 50%以上 反映되고 있습니다. 其中 思想問題와 가장 距離가 먼 算數教科書에서 例를 하나들면 「우리 아버지 金日成 元師任께서 우리 學校에 사과를 9箱子 보내 주셨고, 이웃 學校에 8箱子 보내 주셨습니다. 모두 몇 箱子입니까?」 이와 같이 金日成 偶像化 一色으로 되어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職場教育, 居住地教育, 金日成 生家와 捏造된 戰跡地를 巡禮시키는 現場教育 等の 社會教育을 通하여, 또한 集團勞動, 軍事訓練, 團體活動 等の 共通教育을 通하여, 全社會를 思想教育場化 하므로써 狂信的이고 好戰的이며 殘忍한 共產主義的 새 人間形成에 血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 北韓은 赤化統一이라는 그들의 革命 課業完遂를 爲하여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을 軍需産業 爲主의 重工業 優先政策에 두고 이를 爲하여 全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1961년부터 1969년까지의 投資実績은 重工業이 80%로서 그 內訳을 보면 軍需工業에 投資한 比率은 68%에 達하며, 施設面에 있어서는 1,000名 以上の 從業員을 가진 42個의 重工業 工場中



25個가 軍需工場이며, 또한 重工業에 動員되고 있는 人員은 總 15萬名인데 그中 53%인 8萬餘名이 軍需工場에서 일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와 關聯하여 北韓의 軍事費 負擔額을 살펴보면 그들이 發表한 72年度의 北韓 國防費總額은 7億6,300萬弗로서 1人當 GNP에서 國防費 負擔額은 53.3弗이며, 이를 우리의 13.6弗에 比하면 約 4:1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龍大한 勞農赤衛隊와 붉은 青年近衛隊를 維持하기 爲하여는 아직도 많은 國防費를 他豫算項目에 隱蔽시키고 있는 것으로 判斷됩니다. 即 日本의 內閣調査室 分析에 依하면 兵器生産費는 人民經濟費로, 軍事研究 및 教育費는 社會文化費로, 人民武力部關係費用은 國家管理費에 偽裝編入 시킴으로써 實際의 國防費는 그들의 發表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判斷됩니다.

다음, 軍事的 側面에서는 이른바 4大軍事路線에 依한 戰爭準備를 完了하고 對外的으로는 軍縮과 UN軍 撤収를 主張하고 있습니다.

北韓은 正規軍이 28個師團에 不過하지만 完全武装한 豫備兵力을 龍大하게 保有하고 있습니다. 即 勞農赤衛隊 142萬名中 40%에 該當하는 57萬名을 高射砲, 野砲, 戰車 等 攻擊用 武器로 重武装시켜 놓고 있어 이 豫備兵力을 그들의 師團兵力 14,000名 基準으로 換算하면 40個師團이 되어 事實上 68個 師團의 正規軍을 保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나머지 勞農赤衛隊 85萬名과 붉은 青年近衛隊 70萬名 都合 155萬名은 個人用 小火器로 武装을 시켜 놓고 있어 이를 師團數로 換算하면 110個 小銃師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比하여 우리는 正規軍 29個 師團으로 表面上 北韓과 比  
等하지만 豫備兵力으로 偽裝된 軍事力은 南北韓間에 深刻한 不均衡  
을 露呈하고 있으며, 이런 点으로 볼때 北韓이 主張하는 UN軍  
撤収와 軍縮提案은 第二의 南侵을 劃策하려는 陰謀라고 断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韓國統一의 特殊性은 非單 以上에서 說明드린 國際的 狀況이나,  
北韓의 内部體制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分断 以後 4半世紀에 이  
르는 동안 相互 相異한 體制로 말미암아 繼續南北間의 異質化가  
深化되어 가고 있는데서도 찾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半萬年の 歷史와 民族의 傳統을 다듬고 되새겨 繼承 發  
展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歷史를 비롯한 여러 部門에 걸  
쳐 民族의 固有한 傳統을 強制로 抹殺하면서 共產主義的 傳統을  
捏造하고 있습니다.

이에 對한 몇가지 事例를 살펴보면, 먼저 歷史에 있어서 1866  
년에 美國商船인 <셔만>호가 大同江을 거슬러 올라 오면서 通商  
을 要求한 事實이 있습니다. 이 事件을 우리 正史에는 當時의  
平安道觀察使인 朴珪壽가 官軍과 民間人을 動員하여 退脚을 要求하  
다 不応하니 이를 燒却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北韓에서는 이 <셔만>호 燒却事件의 主人公이 金日成의 祖父  
인 金甫玄이라고 捏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古來로 金日成이란 將軍의 傳說이 있었는데

小

이 金日成 伝說마저도 그들 나름대로 捏造하고 있습니다.

北韓에서 出版된 <金日成伝>에 依하면 本名이 金成柱인 現在の 金日成을 1931年頃부터 自己만이 金日成이라는 이름으로 抗日鬪争을 했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事實과 全혀 다릅니다. 日帝時代に 金日成이라는 이름으로 抗日獨立運動을 한 사람은 모두 20名 가량 됩니다.

即 1917年부터 1930年의 金成柱 以前까지의 金日成은 14名으로 밝혀졌으며 金成柱 以後에도 또 다른 4名의 金日成이 活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 金日成은 自身の 業績만 내세우려고 自己 앞뒤의 金日成들의 存在를 모두 抹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 固有의 傳統的 風習도 없애버리고 저들 멋대로 造作하고 있습니다. 正月 대보름이나 端午節 등을 封建主義의 殘滓라 하여 없애고 金日成 生日을 커다란 名節로 삼고 있으며, 祖上崇拜의 祭日은 祖上の 生存時 社會主義 建設을 爲하여 잘 한일 못한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批判하고 反省하는 祖上 批判會의 機會로 삼고 있으며, 또한 成年이 되면 누구든지 父母들의 保護下에 自由로 結婚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男女結合의 神聖한 結婚마저도 黨의 許可를 받아야 함은 勿論, 萬若 父母가 이에 反對하면 1年以下의 教化勞動에 処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言語에 있어서도 많은 差異와 變化를 가져왔습니다.

即 北韓에서 사용하고 있는 用語들 中에서 우리 用語와 많은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세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用語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追尾主義>는 <創意性이나 能動性없이 남의 뒤만 따라 따라다니는 無事安逸主義>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用語는 같으나 뜻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煽動>은 우리와 正反對의 뜻을 가진 <合法的活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째로 뜻은 같으나 用語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머슴>을 <雇農>이란 用語로 쓰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變質된 用語들은 우리가 調査 把握한 것만도 1,500餘個에 達하고 있습니다.

北韓은 現在 한글專用이지만 여러분들의 理解를 돕기 爲하여 漢字를 섞어 北韓의 住民사이에 오고 가는 文章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文章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直接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偶然分子가 引伝帶인 社勞靑을 業間體操時에 氣象水門局에서 暗害하였다」

그러면 제가 우리말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 뜻은

『들어와서는 안될 異質分子가 黨과 大衆間의 中間役割을 하는 社會主義 勞動者 靑年同盟을 業務中の 休息을 위한 體操時間에 觀象臺에서 中傷謀略을 하였다』는 것으로 우리들이 到底히 알아 들

을 수 없는 內容인 것입니다.

以上의 몇가지 例에서 우리는 分斷 4半世紀동안에 南北間의 異  
質化 現象이 얼마나 深刻하게 深化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  
다. 따라서 分斷이 繼續되면 될수록 우리의 統一이 얼마나 어려  
우며 힘겨운 課題인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 第三章 政府의 統一政策과 우리의 使命

韓國의 統一方案은 1954年 제네바 政治會談 以後 一貫되게 UN 監視下에 南北土着人口 比例에 依한 自由總選舉로써 統一獨立된 民主韓國을 建設한다는 立場을 堅持하여 왔습니다.

自由黨 政府는 한때 北進統一을 主張한 적도 있긴 했습니다. 마는 南北總選舉에 依한 統一方案에는 變함이 없었고, 民主黨政府 亦是 UN決議를 尊重한 南北總選舉을 主張했던 것입니다.

5.16 革命後 第3共和國에 들어와서 共和黨 政府도 UN에 依한 民主·平和統一이라는 基本方案은 堅持하되 다만 共產主義와 對決하여 民主主義 勝利下에 祖國統一을 成就하기 위해서는 統一의 길은 오로지 祖國近代化와 經濟自立에 있음을 強調하고 「先建設, 後統一」의 方向을 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民族中興과 自立經濟의 建設에 拍車를 加하여 오던 中 70年代에 들어 서면서 國際情勢가 急變化되고 緊張緩和의 무드가 高潮되는 틈을 타서 北韓의 偽裝 平和統一 攻勢가 熾烈해 지자, 이에 對한 能動的이고 現實的인 措置로서 1970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朴大統領閣下께서는 内外의 耳目을 集中시킨 平和統一 構想을 宣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真正한 意味에 있어서 平和統一의 길을 指向하게 된 嚆矢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後 1972年 12月 改正된 維新憲法에서는 그 前文에 平和的

統一의 念願을 表示하고, 43條 2項과 46條에 大統領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義務와 國民에 對한 宣誓를 規定함으로써 우리 政府의 平和統一指向政策을 憲法에 의하여 明文化하였습니다.

이러한 大統領閣下의 宣言과 憲法 精神에 따라 우리 政府는 統一政策의 推進段階를 크게 3段階로 나누어 推進하고 있습니다.

即, 第1段階는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段階이고, 第2段階는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는 段階이며, 第3段階는 南北韓이 總選舉를 實施, 統一政府를 樹立하는 段階인 것입니다.

이를 좀더 具體적으로 說明드리면, 第1段階에서는 南北間의 體制 整備의 基盤위에서 對內的으로는 南北對話를 忍耐와 誠實으로써 推進하여 南北相互 不可侵 協定을 締結하고, 對外的으로 南北 UN同時 加入을 實現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UN憲章의 精神을 実感, 體得케 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無謀한 民族相殘의 戰爭을 挑發치 못하도록 抑制시키고, 또한 共產圈에 對해서는 朴大統領閣下의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外交의 門戶를 開放하여 和解와 關係改善에 積極 努力하는 등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期함으로써 平和를 定着시키자는 것입니다.

第2段階에서는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土臺로 南北間의 諸般交流를 積極 實現함으로써 相異한 體制로 말미암아 異質化된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段階인 第3段階에 가서는 民族의 同質性 回復의 基盤위에서 韓半島 問題에 對한 UN決議를 尊重하면서 南北韓 土着人口

比例에 의한 自由總選舉를 實施·民主統一 政府를 樹立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段階的 平和統一政策의 實現方法으로는, 北韓의 武力挑発의 完全 拋棄를 前提로 하는 漸進的 接近 方式을 取하고 있습니다.

即, 離散家族찾기 等 人道的 問題를 먼저 解決한 다음 經濟, 社會, 文化, 體育等 非政治的 問題를 解決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政治的 問題를 解決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漸次的 接近方式을 國際政治學上的 理論인 機能主義理論과 集中理論에 立脚해서 풀이해 보고자 합니다.

機能主義理論이란, 모든 社會가 여러가지 機能의 統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前提에서 出發하는 理論입니다.

社會를 움직이는 機能 가운데는 그 社會가 代表하는 이데올로기를 強力히 反映하는 機能도 있고 또 어떤 機能은 體制나 理念에 關係없이 人間이 살아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機能이 있습니다. 이러한 機能中에서 이데올로기를 反映하는 機能을 政治的 機能이라고 한다면 그밖의 機能은 非政治的 機能이라고 区分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美國과 蘇聯은 體制와 理念이 전혀 다른 國家들이지만 經濟, 社會, 文化分野에서는 接觸과 交流를 推進하고 있으며, 이를 通하여 兩國間의 緊張緩和가 促進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UNESCO 万国郵便聯合等 國際社會의 統合은



바로 이와 같은 非政治的 機能間的 接觸에 依하여 成立되고 있는  
것입니다.

結局, 体制와 理念이 다른 社會가 서로 協調하고 協力을 통해  
統속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機能主義理論을 活用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 國際적으로 證明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利害對立이 甚한 部門의 協力は 避하고 利害對立  
이 가장 적고 相互利益이 實現될 수 있는 機能分野의 協력을 優  
先하여 推進하는 것이 理念으로 갈라진 오늘의 世界問題를 解決하  
는데 있어서 核心的인 關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非單 오늘의 國際問題 解決의 現實的 方法일 뿐만 아니  
라 주어진 問題解決을 위한 人間的 合理的 思考에도 符合한 것입  
니다.

이 機能主義理論을 例를 들어 說明하면, 各級學校의 入學試驗을  
볼 때 受驗生이 試驗問題中에서 第一 쉬운 問題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時間이 있으면 덜 어려운 問題를 풀고 또 第一 어려  
운 問題를 풀어가는 그런 式으로 統一問題를 漸進적으로 풀어 가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南北間에도 서로 合意되기 쉬운 問題부터 解決하고 合意  
하기 어려운 問題는 제쳐 놓는 式으로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南北間에는 이제까지 6.25 事變이 있었고 또 共匪南侵이 繼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金日成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이 事實입니  
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한개, 두개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実績을 쌓아 나갈것 같으면 어느 程度 不信이 緩和되면 그 다음에는 서로 같은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기 위한 努力을 해야 할 것이며, 民族의 同質性이 回復되면 그 위에서 비로소 統一問題를 論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機能主義 理論에 立脚해서 對話를 繼續할 것 같으면 國際政治學의 어려운 理論입니다만 集中理論에 依해서 結局 金日成이는 變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大韓民國이 經濟적으로 發展해 나가는데 自己들은 戰爭準備만 하고 閉鎖性만 維持하고 있으면 經濟적으로 大韓民國과 比較가 될 수 없이 落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自己들도 韓國과 같이 經濟發展을 하기 爲해서는 外國의 資本技術을 導入해야겠고, 또한 産業能率을 向上시키기 위해서 合理化도 시켜야 겠으며, 그리하여 國民生活도 向上시켜야 될터인데 그렇게 해서 國民生活이 向上되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戰鬥的인 共產主義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例를 들면, 美國은 資本主義이고 蘇聯은 共產主義이지만 美國의 「메트로이트」 같은 自動車工場 地帶와 蘇聯의 自動車工場 地帶는 都市의 構造에서부터 生活樣式까지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資本主義나 共產主義나 해보아도 産業經濟의 發展에 따라 能率과 合理化, 開放化라는 方向으로 가다 보면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는 漸次 비슷한데 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金日成體制下에서는 解決되지 않는 問題들도  
變換 金日成體制下에서는 解決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는 統一問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으나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相當히 오랜 時日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힘의 哲學을  
信奉하는 金日成이가 우리가 弱한 틈을 주는 瞬間에 再侵하지 않  
도록 우리는 繼續 北韓 보다도 強한 힘의 優位를 維持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以上에서 漸進的 接近方法에 의한 平和統一을 基本方向으로 하는  
우리 政府의 統一政策을 살펴 보았읍니다. 다음에는 北韓의 統一  
政策을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그들은 基本目標를 韓半島의 赤化統一에 두고 그 方法으로서는  
武力에 依한 方法, 革命에 依한 方法等 二重戰略을 驅使하고 있읍  
니다.

北韓 勞動黨 規約 前文에 提示된 黨의 當面目標와 最終的인  
目標는 共產體制의 樹立을 規定하고 있으며 同時에 이러한 目的을  
遂行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路線을 提示하고 있읍니다.

『朝鮮勞動黨은 南北朝鮮의 広範한 人民大衆을 自己의 周圍에  
튼튼히 團結시키며, 勞農同盟을 基礎로 한 全朝鮮의 各界 各層 愛  
國的 民主力量들과의 統一路線을 強化함으로써 우리나라 南半部를  
美帝國主義 侵略者들의 強占과 그 走狗들의 反動統治로부터 解放하  
고 民主主義的 基礎 위에서 祖國의 完全한 統一을 達成하기 爲하  
여 鬪爭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金日成은 統一을 實現하는 方便을 두가지 側面에서 提示했는데, 그 하나는 戰爭의 手段에 依存하는 極端的인 힘의 對決에서의 優位성과 다른 하나의 平和的 手段에 依存하는 이른바 政治的 野合 可能性을 前提로한 共產化 革命의 推進입니다.

金日成이는 協商은 곧 平和的 方法을 통한 鬪爭의 一環이며 盲目的인 平和主義는 결코 容納될 수 없는 것이고 敵과의 協商에서 有利한 談判을 벌이기 爲해서는 반드시 強力한 軍事力을 背景으로 해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셨습니다. 이러한 基本原則에 따라 北韓은 分斷 28年동안 그때 그때마다 戰爭과 平和의 二重戰略을 展開해 왔는데, 이 二重戰略의 窮極的인 目標은 全 韓半島에 共產主義 體制를 確固히 移植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統一戰線 形成의 하나의 方便으로서 <聯邦制> 統一方案을 繼續 主張해 왔습니다. 北韓의 聯邦制 提議는 1960年 8.15 記念式에서 行한 金日成演說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演說에서 金日成이는

첫째, 外勢干涉 없는 南北總選舉 實施

둘째, 南北總選舉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 聯邦制 實施

셋째, 上記 提案에 同意치 않으면 南北의 産業界 代表로 構成되는 經濟委員會를 構成할 것 등을 提案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聯邦制는 그 後 韓國의 5.16 革命으로 因한 情勢安定

과 더불어 北韓内部의 戰爭準備 政策으로 事實上 中斷되었다가 越南 戰의 終戰展望이 뚜렷해진 1969年 8.15 記念式에서 行한 金一의 演說에서 다시 提起되어 간헐적으로 主張해 오다가 그 後 美, 蘇, 美, 中共의 和解 무드가 造成되기 始作한 1971年 4月 12日 北韓 外相 許淡이 發表한 8個項目的 統一方案 가운데 包含되는 等 同一한 內容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南北對話와 함께 公式적으로 聯邦制案을 提示한 것은 1972年 9月 17日 金日成의 日本 「每日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였습니다. 金日成은 그 會見에서,

『平和的 祖國統一을 하루 빨리 實現하기 爲해서 于先 南北聯邦制를 實施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主張하는 南北聯邦制는 南北의 現存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政府와 大韓民國政府의 代表로 <最高民族會議>를 組織하여 南北間에 提起되는 政治, 經濟, 軍事, 文化的 諸問題를 解決함으로써 民族의 團結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라고 說明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聯邦制가 統一에 갖는 意義와 役割에 關해서 金日成이는,

「 이와 같은 南北聯邦制를 實施하여 南北間에 모든 分野에서 広範한 交流와 往來가 實現되면 南北間의 不信과 차디찬 感情은 解消되어 理解하고 信賴하는 霧圀氣가 造成됨으로써 民族的 團結이 容易하게 이룩될 것이며, 南北間에 信賴의 霧圀氣가 造成되어 民族的 團結이 이룩되면 어떠한 外勢의 干涉도 받지 않고 民主主義的 南北

總選舉를 통해 全 朝鮮統一政府를 樹立하는 方法으로 나라의 自主  
的 平和統一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後 北韓은 南北對話가 本 軌道에 들어감에 따라 第2, 3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 武力增強과 軍備競争中止, 外國軍隊撤収, 軍隊와  
軍備縮小, 外國으로 부터의 武器搬入中止, 平和協定締結 等を 主張하  
였습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朴大統領閣下의 6.23 宣言이 發表되자 金日成  
은 같은 날 午後 다음과 같은 이른바 <5大綱領>을 主張  
하였습니다.

이 <5大綱領>이란,

첫째, 軍事對峙狀態의 解消

둘째,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

셋째, 大民族會議 召集

넷째, 高麗聯邦制 實施

다섯째, 高麗聯邦國號下의 UN單一 加入 等を 內容으로 하고 있  
습니다.

以上 1960年 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北韓이 提議한 聯邦制는  
內容上으로는 그 어느 것이나 同一한 것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南北對話 以前과 以後의 聯邦制에 있어 몇가지 特異點이  
있음을 發見할 수 있습니다.

첫째, 南北對話 以前에는 그들의 諸般統一方案中 聯邦制를 하나의  
要素로 包含시켜 어느 하나를 選擇하라는 方式이었는데 對話 以後

에는 이를 止揚하고 다른 統一方案과 한테 묶어서 提議하고 있는 點입니다.

둘째로 對話 以前에는 주로 宣傳 및 大衆的 鬪爭課題로 提起한데 比해 對話 以後에는 宣傳과 大衆的 鬪爭課題로서는 勿論 南北對話의 主題로 올려 놓고 있는 點입니다.

세째로 對話 以前에는 聯邦制 實現에 何等의 前提條件을 붙이지 않았는데 反해 오늘날에는 南北間의 軍事問題 解決을 先行條件으로 들고 있다는 點입니다.

또한 北韓이 提議해온 內容을 보면 聯邦의 國號 聯邦制의 必要性 實施後의 效果等에 關해서만 包括的으로 言及했을 뿐 國際法上 가장 重要한 聯邦成立을 위한 條件, 例컨데 聯邦裁判所 및 聯邦立法機關問題 等에 關해서는 何等 言及이 없다는 事實입니다. 北韓이 聯邦制를 提起하는 意圖는 宣傳 및 心理戰面의 效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聯邦制와 關聯하여 所謂 金日成의 5大綱領에서 北韓의 勞動者, 勤勞農民, 勤勞인테리, 青年學生, 兵士들과 南韓의 勞動者, 農民, 青年學生, 知識人, 軍人, 民族資本家, 小資產階級, 各界, 各層 代表들과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를 召集하자고 提議했습니다.

그런데 이 大民族會議의 召集提議는 南北間에 信賴를 回復하는 段階的 努力에 앞서서 韓半島 狀況을 그들에게 有利하도록 轉換할 수 있도록 民族的인 統一戰線을 形成하려는데 그 底意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北韓은 그들의 基本目標인 共產革命에 有利한 條件이 成就되기까지 提案을 不斷히 飛躍시킴으로써 多様な 問題들을 提起해 놓고 그것을 革命 可能한 條件으로 發展시켜 나가려는 것이 明白합니다.



## 第四章 統一의 展望과 우리의 使命

이제 우리가 반드시 統一을 이룩해야 할 理由를 當爲的인 側面과 現實的인 側面에서 찾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當爲的인 側面에서 살펴보면

첫째 歷史的 見地에서 우리는 半萬年의 歷史를 통하여 單一民族이었고 같은 文化, 같은 傳統, 같은 言語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決코 任意의 南北分斷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憲法前文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悠久한 歷史와 전통에 빛나는 나라입니다. 半萬年의 긴 歷史를 가진 우리民族은 數次에 걸친 外敵의 侵入에도 不拘하고 統一新羅以後 單一民族, 單一國家로서 民族의 긍지를 자랑하면서 찬란한 文化를 形成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祖國統一은 하나의 歷史的 흐름이요, 祖上의 빛난 業을 이어받은 後孫으로서의 當然한 任務요 使命인 것입니다.

둘째 個人的인 見地에서 보면, 南北 分斷은 他意에 의한 人爲的인 政治的 分斷이었기 때문에 南北으로 갈라진 家族再結合의 權利와 要求를 누구도 否定할 수 없는 것입니다.

6.25를 통해 北韓共產主義者들은 父母兄弟를 닥치는대로 학살하였고 무고한 우리 兄弟를 拉致해갔던 것입니다. 더우기 父母兄弟가 北녘땅에서 고된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도 그 消息을 알길이 없는 이 悲慘함을 하루속히 解消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는 南北으로 흩어진 離散家族을 반드시 찾아 단란한 家庭에서 個人的 幸福된 生活을 營為할수있게 하기 위해서도 統一은 切實히 要請되는 것입니다.

세째 人道的 見地에서 보면, 우리는 北韓共産党的 殘忍하고 侵略的 獨裁로부터 우리의 同胞를 自由롭게 할 使命이 있습니다.

人間은 元來 天賦의 人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幸福하고 安全하게 살 權利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같은 民族이면서도 北韓住民들은 共産主義者들의 暴政下에서 呻吟하고 있으니 그대로 放置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非人道的인 人權의 剝奪行爲가 解放後 지금에 이르기까지 繼續되고 있는 北韓땅에 自由를 불어 넣고 人間的인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것이 바로 統一을 해야 하는 必要性인 것입니다.

네째 國家的 見地에서 보면, 南北統一은 國家的 安全을 凶謀하고 經濟成長을 急增시키며, 國民들의 生活을 보다 幸福하고 潤沢하게 하며 平和롭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北韓에는 地下資源이 많고 南韓에는 農·水産資源이 豊富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南韓의 境遇는 工業原料가 生産能力에 比하여 不足한 實情임으로 統一만 된다면 南北韓의 立地的 條件의 特殊性을 살려 均衡的인 國家發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國際的 見地에서 보면,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은 極東의 平和와 安全, 나아가서는 世界의 平和와 安全에 크게 直結되며 또

한 寄与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韓半島는 歴史的으로 보더라도 大陸과 海洋勢力의 衝突地域의 役割을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韓半島에 分断이 持續하는限 紛爭의 불씨를 없애기는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平和와 安全을 期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반드시 統一을 이룩해야 할 理由를 現實的 側面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南北分断에서 오는 苦痛을 解消하여야 하겠습니다.

南北의 分断은 마치 우리의 悲哀와 孤獨, 그리고 아쉬움의 象徴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둘째로 共産獨裁下에서 呻吟하고 있는 北韓同胞를 救出해야 하겠습니다.

北韓同胞들은 精神的 苦痛, 肉體的 苦痛, 物質的 苦痛에 허덕이고 있는만큼, 이들을 하루 速히 4大束縛으로 부터 解放시켜야 하겠습니다. 即 北韓同胞들을 外部世界에 對한 無知로 부터 解放시켜야 하겠고, 組織的인 監視로부터 解放시켜야겠으며 思想的 思考의 統制로부터 解放시켜야 겠으며, 또한 出身成分에 따른 出世機會의 制限으로부터 早速히 解放시켜야 할 使命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세째로 單一民族이면서도 相異해져가는 南北韓間의 異質化 現象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北韓共産主義者들은 人間性이나 思考方式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 國有의 傳統的 價值觀이나 倫理觀 마저도 抹殺해 버렸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人間과 社會를 共産主義의 틀속에서 完全히 變質化시켜 버렸습니다.

네째로 悠久한 半万년의 歴史와 傳統을 持續시키기 爲해서도 統一은 切實히 要請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要請과 必要性에서 우리는 期必코 統一을 實現해야만 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朴大統領 閣下께서는 오직 統一이라는 한결 같은 民族的 念願을 平和的 方法으로 반드시 具顯시키겠다는 굳은 信念과 意志 밑에서 平和統一을 위한 劃期的이고 現實的인 措置들을 斷行하셨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平和統一에의 굵히지 않는 行動哲學이 北韓共產主義者들로 하여금 平和統一의 基盤造成을 위한 南北對話에 応하게 하였으며, 統一接近을 위한 南北共同聲明의 發表를 誘導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昨年 第28次 UN總會에서는 UN創設 以來 最初로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을 促求하는 決議案을 全會員國의 滿場一致로 採択하였는바, 이것은 여러 分斷國問題中 唯一하게 韓國問題에만 取해진 支持와 聲援이었던 것입니다.

7. 4 南北共同聲明 以後의 南北對決은 思想面에서는 理念的 對決에서 現實的 對決로, 軍事面에서는 戰爭一步前 對決에서 潛在的 對決로, 政治面에서는 陰性的 對決에서 陽性的 對決로, 社會文化面에서는 抽象的 對決에서 具體的 對決로, 外交面에서는 部分的 對決에서 全面的 對決로 各各 樣相을 달리하게 되었읍니다.

말하자면 南北關係는 모든面에 걸쳐 總力戰의 性格을 띤 全面的인 政治戰으로 化하였읍니다.

南北對話가 어느程度 軌道에 오르고 어느程度 協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相当期間 힘의 優位를 維持하지 않으면 우리는 結局 危機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統一을 爲하여 우리가 해야 할 使命은

첫째, 政府가 해야 할 일

둘째, 軍이 해야 할 일

셋째, 國民이 해야 할 일

등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境遇를 莫論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進路는

첫째, 金日成의 誤判을 어떻게 事前에 豫防하며

둘째, 緊張이 高潮되고 있는 不定한 休戰狀態下에 놓여 있는 韓半島에 어떻게 하루 速히 平和를 定着시키며

셋째, 平和統一을 어떻게 앞당기느냐 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問題點이요 또한 使命인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고 우리에게 負荷된 使命을 다하기 위해서는 政府에서는 大體로 다음과 같은 重点方向에서 施策을 積極推進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政策面에서는 政府의 모든 部처가 恒常 北韓을 意識하여 政策을 樹立 執行해 나가도록, 關聯部처간의 緊密한 協調下에 國家的 次元의 統一政策과 戰略을 體系的으로 研究 發展시켜야 하겠으며

둘째, 对内面에서는 政府와 國民의 一體感을 形成할 수 있는 올바른 統一安保價值觀을 確立하는데 全力을 傾注하여야 하겠고

셋째, 对北面에서는 北韓의 对内外 宣傳에 対応하여 이를 压倒할

수 있는 宣傳攻勢와 對北戰略을 重點的으로 開發하여야 하겠으며  
내제, 對外面에서는 國際社會의 輿論을 有利하게 誘導하  
기 위하여 南北關係에 對한 올바른 認識을 提高함과 아울러 緊密  
한 紐帶를 強化하는데 注力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方向에 따라 우리는 干先 北韓의 對南戰略과 最近動向을  
直視하여 大統領閣下께서 이미 國內外에 闡明하신 南北間의 相互  
不可侵協定을 이룩함으로써 이땅에 戰爭 代身에 平和를 定着할 수  
있는 모든 努力을 總動員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政策方向에 立脚하여 우리가 開發해야 할 當面對策은  
첫째로 外交面에서는 北韓이 對話에 應하도록 美國과 友邦諸國을  
 통한 對中·蘇 幕後交涉을 慎重하게 展開함은 勿論, 韓國問題에 關  
한 UN決議도 南北對話의 再開促求 手段으로 活用하는 한편, 可能  
한 限 中共과 蘇聯에 우리가 直接 接近할 수 있는 對中·蘇 和  
解心理戰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推進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軍事面에서는 北韓이 對話의 必要性을 切實히 느끼지 않  
는 理由가 바로 그들의 海軍과 空軍力이 우리보다 優勢하다는 傲  
慢感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事實에 留意하여 北韓이 對話를 繼  
統 拒否할 境遇에는 우리의 軍事力을 汎國民的 次元에서 總蹙起  
強化하므로써 이미 限界點에 達한 그들의 軍事費 負擔의 過重에  
히덕이는데 더욱 壓力을 加하여 南北對話의 必要性을 스스로 切感  
하도록 하는 方向으로 推進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弘報面에서는 우선 對外的으로 對話의 中斷責任이 北韓側

에 있음을 徹底히 認識시키고 北韓의 이와같은 処事가 南北對話를 促求한 UN決議에 違背됨을 全世界에 알리는 한편, 南北對話에 依한 韓半島의 平和定着만이 極東의 平和와 安全에 有益하다는 事實을 各國에 說得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北韓에 對해서는 그들의 對話忌避가 南侵準備의 決定的 徵兆라고 糾彈함과 同時に 全國民이 總蹶起할것을 力說하는 敵對的 心理戰을 展開하는 한편, 이와 아울러 南北間의 平和共存이 民族共同의 目的實現에 有益함을 強調하는 和解의 心理戰도 展開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國民들에 對해서는 우리의 軍事力이 弱화되고 國論이 分裂되면 北韓에게 直接·間接 侵略의 誘惑을 갖게 한다는 點을 周知시키고 優勢한 軍事力 確保와 國民의 一致團結만이 北韓의 南侵野慾을 挫折시킬수 있다는 點을 強調함으로써 國民들의 安保價值觀을 올바르게 確立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努力을 通하여 새롭게 열릴 第2段階 對話에서는 南北對話가 民族의 念願實現에 아무리 緊急한 課題라 하더라도 北韓이 提議하는 不當한 對話條件은 絶對 受諾할수 없다는데 우리의 確固한 基本立場을 두고, 會談方式에 있어서는 從來의 形式的이고 儀禮的인 方式을 止揚하고 實質的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誘導하며, 또한 議題도 外軍撤収와 같은 韓國安保의 挑戰要素에 關한 事項은 絶對 不可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認識시켜 完全 排除하고, 다만 南北間의 相互不可侵 問題와 分野別 交流에 關한 事項에만 局限시켜 다루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努力의 結果는 長期

的으로 볼때 우리의 平和統一 与件을 實質的으로 改善해 나가는데  
寄与할 것입니다.



## 第五章 政府의 統一政策의 理論的考察

平和統一에의 接近을 示圖함에 있어서, 政府는 다음과 같은 多方面的인 統合理論을 有効適切히 應用하고 있다.

### (A) 4段階 平和統一 方案

이것은, 1970年 9月 高麗大學校 亜細亞問題 研究所가 国土統一院의 後援으로 開催한 <韓國統一 問題에 관한 國際會議>에서, 美國 콜럼비아 大學 教授 Z. 브르제진스키가 發表한 4段階 平和統一 方案이 그 理論的 試圖의 代表的 實例이다. 브르제진스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對立하고 있는 韓半島가 平和的으로 統合되기 위하여서는, 南北韓 關係가 다음과 같은 4段階로 變遷될 수 있어야 한다고 展望하였다.

즉 그 第1段階는 直接的인 對決關係, 第2段階는 衝突과 競爭의 混合關係, 이 段階를 거쳐 第3段階는 制限된 協助關係, 마지막의 第4段階는 広範한 協助關係인 바, 적어도 南北韓이 現在의 不和와 體制差異에도 不拘하고 平和的으로 統合되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네가지 段階의 變遷을 거쳐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勿論 이 理論은 그 成果가 實證되지 않은 하나의 假설에 지나지 않으나 그러나 이 假설은 다음 세가지의 事實과 關聯하여 政府의 平和統一을 위한 長期構想 設定의 理論的 基礎로 活用될 수 있는 것이다.

(a) '70年代의 韓半島 周辺情勢가 武力에 의한 現狀打破를 願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만일 統一을 위한 武力對決의 可能性이 增加된 경우,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分斷의 現狀固定化를 強要할 國際關係가 發展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b) 유엔의 勸告에 基礎한 韓半島의 平和統一의 可能性이 全無해 졌다는 事實. 北韓이 유엔總會의 勸告를 拒否하는 限, 유엔의 統 韓決議案은 實効를 見을 수 없는 것이며, 설사 北韓이 유엔의 勸 告를 受諾한다고 하더라도 南北韓이 '50年代의 動亂以來 休戰線를 中心으로 軍事障壁을 쌓은 가운데 4 반세기 동안 相互 異質化의 過程을 걸어왔기 때문에 南北間에 가로놓인 이와 같은 體制上의 差異가 土着人口比例에 基礎한 自由總選舉만 實施하면 기적같이 解 消될 수 있다는 것이 證明되지 않는 한, 平和적인 政治統合의 結 果를 가져온다고 期待할 수 없는 點이다.

(c) 政府가 以上の 두가지 判斷에 比추어 韓半島의 統一을 平和 的으로 成就하기 위하여, 南北間의 相互 武力行使의 拋棄를 提案하 는 8.15 宣言을 發表했다는 事實이다.

政府는 이와 같은 段階說을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關係 展開의 可能한 論理로 判斷하고 이에 立脚하여 南北關係展開의 4 段階 構 想을 正립하고 있다.

즉 第1 段階는 體制對立關係로서 50年代와 60年代의 南北關係가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며, 第2 段階는 南北間의 衝突과 競爭이 混合되는 關係로서 現時點의 南北韓關係를 予想하며, 第3 段階는 體 制交流 關係로서 南北間에 對話가 열리고, 公營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짐

으로써 諸般分野의 交流가 促進되어 國土分斷에 起因한 民族的 苦痛과 不便이 輕減되는 時期로 보며, 第4段階는 體制融合關係로서 南北間의 各 分野마다 協力과 交流가 增進되고 南北間에 이질적 要素가 縮小되는 반면 民族的 同質性的 領域이 擴大됨으로써 南北이 平和적으로 統合될 關係가 整備되는 段階로 본다.

1970年 8.15 宣言을 계기로 政府가 樹立한 平和統一의 長期構想은 그 基本的 前提를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南北韓 어느 한편의 一方的 課業일 수는 없고 雙務的 課業이며, 따라서 統一을 平和的 手段으로써 解決하자는데 南北間의 合意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두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構想이 具體化되기 위하여서는 南北間에 對話를 열고 이 對話를 통하여 緊張을 緩和시키는 한편 平和統一을 위한 相互協力の 領域을 開發할 수 있어야 한다.

政府는 이와 같은 必要性에서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를 通하여 南北韓 離散家族 찾기 運動을 提意케 하여, 南北關係를 對話의 關係로 轉換시키고, 잇달아 1972年 7月 4日에는 南北共同聲明을 誘導해 냄으로써 平和統一을 위한 基盤을 造成하였다. 이로써 南北關係는 第2段階의 衝突과 競爭의 混合關係에서 第3段階인 體制交流段階로 도약할 地뎁들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 (B) 決裂制御效果論

南北間의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킨 措置가, 南北間에 高潮되고 있는 緊張緩和에 繼續 寄與할 수 있는가를 例示해주는 方法理論으로서 이른바 決裂制御效果論을 活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의 國際政治學者 칼·도위치는 그의 이른바 決裂制御效果論에 의하여 이와 같은 可能性을 論證하고 있다. 도위치 教授는 그의 著書 『國際政治의 分析』 (Karl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entice Hall, L.C. 1972) 에서 A. 라포포트의 경기이론에 관한 實驗的 研究를 紹介하면서, 두개의 적대하는 집단간에 한번 對話가 開設되면 兩者間の 軍事的 緊張狀態는 潛在化하는 反面, 한번 열린 對話는 成果와 關係없이, 決裂되지 않고 繼續 持續되는 一種의 決裂制御效果를 나타낸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것은 예컨대 치킨·게임에 있어서 두 플레이어들이 서로 約束動作을 就할 수 있을 경우, 兩 플레이어들이 모두 망신당하지 않기 위하여 同時に 바른 길에서 벗어나 協同을 하는 경우와 유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적대집간에 열린 對話는 비록 그들 戰略目標가 서로 다르다하더라도, 相互間的 對話需要로 말미암아 決裂되지 않고 繼續 維持되며, 이에 따라 兩者間에는 軍事的 緊張의 強度가 下降하게 된다. 특히 對話의 초기 단계에는 변절보다는 協同하는 選擇이 強하게 作用하기 때문에, 緊張緩和의 效果는 더 高潮되고 個人間的 關係에 있어서는 對話를 통한 약속동작에 의한 協同效果는 73%에 달하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는 것이다.

勿論 이와 같은 分析이 곧 國家間的 關係에도 그대로 適用된다는

保障은 없다. 그러나 國家間的 關係라 할지라도 緊張緩和가  
즐거 選擇되는 霧困氣 가운데서는 한번 열린 對話는 앞에서 말한  
決裂制御效果의 影響으로 決裂되지 않고 繼續하여 維持될 確率이  
높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反証을 살펴보면, 쉬이 알 수 있다. 對話의 決裂은  
問題解決手段으로서의 對話의 技能停止를 意味하기 때문에, 對話로서,  
潛在化된 軍事的 緊張이 戰爭 일보전의 關係로 惡化될 것이다.

이 경우 대화를 試圖했던 兩側은 對話開始 以前에 있었던 緊張維  
持負擔보다도 한층 더 加重된 負擔, 즉 武力對決에서 勝利를 確保  
해야 할 負擔을 짊어져야 할 狀況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增加된 緊張에 対応하기 위하여, 兩便은 새로운  
負擔을 말아야 하는데, 兩便은 어느 便도 外部의 支援없이는 먼저  
必要한 費用을 調達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거나 緊張助成 또는  
武力對決이 強大國關係에서 抑制되는 情勢下에서는, 어느 편도 外部  
로부터 軍事支援을 얻을 수 없을 것임을 当事者들도 잘 理解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当事者들은 이와 같이 負擔增加에 結果할 事  
態의 發生을 回避하려는 選擇에 關心을 갖게되며, 바로 이러한 選  
擇慾望에 의해서 일단 열린 對話는 그 成果와는 關係없이 繼續  
維持되는 效果를 創造하는 것으로 추론되는 것이다.

平和統一의 長期構想을 段階적으로 進展시키기 위한 基本措置로서  
南北間에 對話를 開設한 選擇은, 이러한 理由로 미루어 볼 때,  
그 妥當성이 證明될 것이다.

### (C) 波及效果論

南北間에 對話를 開設한 措置는, 決裂制御效果에 의하여 對話의 決裂이 抑制되는 가운데 緊張을 緩和시키는 效果가 있다는 것이 論證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選擇이 長期構想의 實用性を 證明하기 위해서는 對話를 通하여, 體制間의 根本的 差異에도 不拘하고 協力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고, 이와 同時 協力を 通해 國土 分斷에 起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없앨 수 있다는 期待도 充足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必要한 方法理論은 D. 미트라니에 의하여 正설화된 機能主義에 있어서의 波及效果論이다.

(D) 미트라니에 의하면, 東西間에 體制와 理念이 다르지만 그 體制가 代表하는 이데올로기와 密接히 關聯되지 않는 機能間에는 對話를 通하여 協力이 可能하다고 主張한다. 이 見解에 의하면, 모든 社會는 多樣한 機能이 統合되어 있으며, 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機能 가운데는 이데올로기적 特性을 強力히 反映하는 機能이 있는가 하면, 이데올로기와는 關係없이 人間이 生活하는데 必要한 機能도 있고, 相對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적은 機能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諸般 機能을 單純化하여 이데올로기가 強力히 反映되는 機能을 政治分野의 機能으로 定義하고,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적은 機能이 非政治分野의 機能이라면서, 이 非政治分野의 機能間에는 體制差異에 關係없이 協力이 可能하다고 說明하고 있다.

미트라니의 이러한 見解는 現在 東西 兩陣營의 代表가 多같이 參與하여 國際協力の 實效를 檢우고 있는 國際聯合 專門機構 成立의 理論的 基礎가 되어 있다.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1966)

또한 機能主義가 相異한 體制間의 對話와 接觸에 의한 協力の 成果判斷은 단지 協力の 可能性 論證에만 局限되지 않는다.

비록 非政治分野에 있어서 조그마한 形態의 協力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成就되기만 하면, 이 協력이 基礎가 되어 보다 큰 協力を 生産하는 波及效果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方法理論에 따르면, 理念과 體制가 相異한 集團間에 對話가 열리면 非政治機能分野間에 協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와 같은 協력이 土臺가 되어 좀더 큰 協력으로 發展하는 것을 期待할 수 있으며, 이 課程에서 體制差異에 起因하는 緊張이 緩和된다고 보는 것이다.

以上에서 檢 본, 機能主義에 있어서의 波及效果理論에 의한 體制統合은 現在까지 그 成果가 同種 社會間의 統合運動으로서의 歐洲共同體 등로서 具現化되고 있으나, 相異한 體制間의 統合 可能性을 實證하는 못하고 있다. 또 相異한 體制間의 非政治分野의 協力は 「電氣通信聯合 (ITU)에서 成果가 具體化되고 있으나, 이 協力の 波及效果가 相異한 體制間의 政治統合에까지 이르리라는 論證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는 하지만 이 方法理論이 지니는 效果는 充分히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機能主義와 波及效果理論은

南北赤十字會談을 起點으로 始作된 南北對話를 土台로, 南北間의 懸案問題를 解決하기 容易한 것부터 점차 어려운 問題로 풀어나가면서 分단에 起因하는 民族의 苦痛과 不便을 輕減시키자는 政府의 段階的 統一接近方案의 理論的 基礎가 된다. 特히 政府가 解決하기 容易할 問題에 領域을,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에서 經濟·社會文化分野로 定義하고, 이 分野의 南北協力을 促進, 分斷狀態를 改善키 위하여 社會開放에 관한 15個項의 交流를 提議한 措置는 機能主義와 그 波及效果論에서 實証된 理論的 妥當性에 터건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勿論 平和統一의 長期構想에서 展望하는 南北間의 體制融合이 이러한 方法理論의 接近만으로 實現되리라고는 斷정할 수는 없다. 現 段階의 南北關係 처럼 體制守護를 위한 戰略이 상충하고, 또 國際政治的 要因으로 因하여 南北 當事者間의 對話를 통해 解決 가능한 問題領域과 解決하기 困難한 問題領域이 分割되어 있는 狀況에서는 機能主義 및 波及效果理論에 의한 南北協力 및 統合에는 限界性이 없을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 方法理論은 平和統一에 관한 長期構想의 第2段階로부터 第3段階로의 進展可能性에 대한 理論的 基礎가 되겠으며 그 實踐上的 指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第4段階의 體制融合에 의한 南北間의 政治統合의 可能性을 立証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다른 새로운 理論的 根柢가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說明하게 될 수렴理論은 그 自強 妥當性있는 가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D) 수렴理論

세계가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分列된 以後, 事實上 理念의 差異를 넘어서서 統合에 成功한 事例는 全無하다. 비록 現在 東西 兩 大陣營間의 核武器가 發達됨에 따라, 理念差에 起因하는 國際間의 緊張은 차츰 平和共存의 方向으로 기울어지고는 있으나, 共存의 理念差異를 극복하는 統合으로까지 發展하리라는 展望은 分明하지 않다. 第2次 大戰 以後 東西世界의 이데올로기적 分극화 과정에서 國土가 兩斷된 國家의 統一問題가 當面하는 가장 큰 難關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平和統一에 관한 長期構想의 第4段 階인 南北間의 體制融合이 窮極的인 南北政治統合의 先決條件으로서 成就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커다란 疑問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觀点에서 본다면, 南北間에 열린 對話가 機能分野에서 協力 促進시킬 수 있다고 전제해 보더라도, 이러한 協력이 과연 體制差異, 理念差異에서 발원하는 모든 渴藤과 緊張을 극복하여 單純한 共存이 아닌, 窮極的 統合으로 發展할 것인지를 明確하게 論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平和統一의 長期構想이 한갓 希望論的 見解의 體系화가 아니고, 實踐的인 統一構想으로 되기 위해서는 南北 赤十字 會談을 契機로 열린 南北對話가 單純히 南北間의 軍事的 緊張을 緩和시켜, 機能分野別 協力を 成就하는데 그치지 않고, 窮極的으로 南北을 하나의 秩序에 統合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說明될 이른바 數理理論은, 비록 미래학적 觀点에서

提示된 한가지 가설이기는 하나, 두가지 根拠에의 機能主義의 限界性을 극복하고 平和的인 体制統合에의 可能性을 엿보이는 것 같다.

이 수렴理論에 따르면, 現代의 産業社會를 分析하는 자리를 設定하고, 現代社會는 工業化와 都市化에 의해서 오늘날 世界를 東西로 兩分시키는 이데올로기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차츰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서, 결국에 있어서 東西의 相異한 体制는 工業化와 都市化의 要求에 適應하는 과정에서 社會制度가 서로 유사하게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世界 各國은 發展의 段階는 다르지만 發展의 目標은 工業化되고 都市化된 産業社會의 形成에 두고 있기 때문에, 世界의 窮極的인 相互수렴은 期待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수렴理論에 따르면, 共產主義 政黨은 그 社會와 國家가 工業化에 成功하여 物質的 豊요를 生産, 供給, 分配할 수 있게 되면, 그 이데올로기적 使命은 完了되고, 오직 工業化의 要求에 對應하는 管理者의 役割을 맞게 될 것이라고 展望한다. 이와 같은 實例로 自動車 工業都市인 美國의 디트로이트시와 朝鮮의 스페들로보스크시를 대조하고 있다.

即 이 두 都市는 各己 理念과 体制가 根本적으로 다른 國家와 政府의 支配와 統制下에 있지만, 다 같이 自動車工業을 發展시키는 과정에서 立脚하고 있는 体制와 理念의 差異에 關係없이 高度로 유사한 管理體制를 들어내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오컨대 이러한 유사성은 처음에는 産業構造나 管理體制와 같은 하부구조에서 나타나지만, 이것이 보편화될 경우 하부구

조의 상부구조로서의 政治形態에서도 相互 類似性을 향한 수렴화적 變化가 일어날 것으로 予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政治體制上의 類似性을 향한 變化의 現實化는 體制差異에 起因하는 統合의 가장 根本的 難關을 除去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수렴理論의 가설을 南北韓 關係에 適用시켜 본다면, 現在의 南北韓은 다같이 開發途上國(産業化의 程度에서는 韓國이 앞서고 있다)으로서 對話를 통한 協力の 追求에 理念差異 및 實用性的 評價差에서 오는 制約이 결코 적지 않지만, 앞으로 南北이 다같이 工業化와 都市化의 程度를 한층 더 深化시키고 또 이 構造에 부합하는 엘리트군과 리더더십이 形成될 경우, 지금 이 時点에서 協力에 대한 合意가 不可能하게 보이는 分野라도 얼마후에는 合意可 能한 分野로 再定義되리라는 希望이 予見될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이 現在와 같은 分斷된 條件아래서도 對話를 통해, 緊張緩和와 制限된 協力を 追求해가면서 工業化를 中心으로 한 産業社會를 이 룩한다면, 이베올로지 보다는 合理化와 能率性을 重視하는 社會態度가 形成될 것이며, 南北關係가 이 段階에 이르면 民族統一이라는 民族的 여망의 霧囿氣가 上昇하는 가운데 政治的 統合에 關한 合意形成도 可能하게 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觀点에서 수렴理論의 가설은 南北對話의 最終結果를 明確하게 予見할 수 없는 現時点에서, 窮極적으로 平和統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可能性을 理論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同時에 機能主義的 接近에서 制約要素로 상정되는 波及効果에 대한 會議도

극복하게 하여 줄 것이다. 勿論 이 가설이 당장 政策의 實踐  
原理로서 그 妥當성이 証明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証明해  
가야 할 課題일 것이다. 별다른 有效한 方法理論의 代案이 없는  
條件下에서는, 統合에 向한 南北韓의 수렴화적인 變化를 創造해  
가는 것이 統一接近에의 努力이 될 것이며 平和統一에의 與件造成  
이 될 것이다.

## 第六章 統一을 위한 南北對話와 問題點 및 그 展望

### 1. 南北對話 開設의 必要性

#### 가. 南北敵對關係 止揚의 摸索

南北韓은 分斷 27年間 서로 異質的인 理念과 政治體制下에서 完全한 斷絶 아니면 激烈한 衝突 속에서 極限的인 對立을 繼續해왔다. 6·25 動亂은 約 100萬에 이르는 同族의 人命을 앗아갔고, 그것을 前後해서는 한 通의 書信往來도 없을만큼 完全한 斷絶이 繼續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極限的인 不和와 對立 속에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끊임 없이 武裝「게릴라」와 間諜을 南派함으로써 南韓의 社會秩序를 破壞하고 政府를 轉覆시키려고 企圖해왔다. 이처럼 그동안의 南北關係는 언제나 一觸即發의 戰爭危險을 內包하고 있었다. 이대로간다면 南北間의 武力對決의 可能性은 날로 增大하고 또한 相異한 理念과 體制의 固定化로 因한 南北韓住民의 思考行態의 異質化 및 그것의 生活化가 憂慮되게 않을 수 없는 事實이었다.

이러한 傾向을 조금이라도 緩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사이에 對話에 의한 接觸을 갖는 길 뿐이다.

그리하여 同族相殘의 再演을 防止하고 아울러 南北統一의 可能性을 摸索하기 위하여는 南北間의 接觸과 對話의 開設이 絶對必要하였고, 同時에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킴으로써

南北間에 高潮되어 있는 緊張을 緩和시킬 수도 있는 것이었다.

#### 나. 國際秩序의 變化에 適應

最近 國際政治의 趨勢가 美·蘇 兩極체制的 構造에서 多極체制的 構造로 變移해감에 따라 國際的 緊張緩和를 摸索하는 潮流가 널리 퍼지고, 그 속에서 國際政治는 政治理念的인 定向에서 實利追求的인 定向으로 기울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國際環境의 變化에 對한 機敏한 適應과 對處가 없는 國家目標의 追求는 非現實的이며 孤立主義的이며 時代錯誤的인 것이다. 이러한 國際環境의 變化 속에서 南北韓이 각각 國際緊張緩和潮流를 外面한채 그대로 緊張狀態의 持續을 固執한다면 그것은 韓半島에서 또다시 戰爭을 誘發할 수 있는 危險要因을 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南北間에 介在된 對立은 어디까지나 對話에 의한 協商方法으로 自主的으로 妥結지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또한 南北間에 對話의 通路가 開拓되어야 한다는 必要性이 提起된 것이다.

#### 다. 國民의 統一念願 實現을 위한 先行的인 現實的 代案

統一에 대한 國民의 念願이 얼마나 切實한가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必要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오늘날 同族相殘의 戰爭에 의한 統一方法을 採択할 수는到底히 없는 것이다.

오늘날 생각할 수 있는 唯一한 統一方法은 平和統一밖에는 없다. 우리 國民의 이러한 平和統一指向意志는 1972年 10月의 維新憲法에 잘 나타 나 있다. 祖國이 平和的으로 統一된 앞날의 展

望을 갖기 위해서도 南北對話는 마땅히 先行되어야 할뿐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南北對話는 國民의 統一念願을 實現하기 위한 現實的인 代案인 것이다.

## 2. 南北赤十字會談의 進行狀況과 問題點

### 가. 會談進行狀況

1971年 8月12日 大韓赤十字社가 南北韓의 離散家族들이 겪고 있는 人間的 苦痛을 덜기 위한 南北赤十字 會談을 提議하고, 그로부터 이틀 뒤 北韓赤十字會側이 이에 同意함으로써 同年 9月 20日 板間店에서 本會談 準備를 위한 予備會談이 始作되었다.

南北赤十字會談 雙方代表들은 그 뒤 25차례의 予備會談 全體會議(公開)와 16차례의 實務者會議(非公開)를 가진 끝에 會談이提起된지 滿1년이 되는 1972年 8月11日의 第25次 予備會談을 마지막으로 本會談 進行節次에 完全한 合意를 보고 予備會談의 幕을 내렸다.

그 후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서울에서 세차례 平壤에서 네차례 開催되었고, 각기 7名の 代表와 7名の 諮問委員 20名の 隨行員 25名の 報道陣등 都合 59名씩의 人員이 各會談때마다 身辺에 아무런 危脅을 받음이 없이 南北을 往來하였다. 南北赤十字會談은 72年10月 平壤에서 열린 第3次 本會談에서 議題 第1項 「南北에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實踐에 옮기기 위한 方法과 節次에 關한 實質問題討議

에 着手하였다.

나. 双方의 基本立場

議題 第1項의 實踐을 위한 節次問題討議에 앞서 韓赤代表團은 討議의 原則으로서 다음 6個項을 提示했다.

(1) 이 事業은 어디까지나 赤十字가 主管하여야 하며 双方 赤十字社가 모든 責任을 지고 事業을 끝까지 完遂해야 한다.

(2) 이 事業에 있어서 赤十字의 本質을 저해할 念慮가 있는 모든 要素는 一切 排擊되어야 한다.

(3) 이 事業의 推進에는 当事者 各個人의 自由意思가 絶對 尊重되어야 한다.

(4) 이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는 当事者 各個人의 身上內容에 관한 秘密이 保障되어야 한다.

(5) 双方은 이 事業의 推進을 위한 合意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 事業에 着手해야 한다.

(6) 이 事業은 正確하고 또 迅速하게 處理되어야 한다.

韓赤代表團은 이러한 6個項의 原則에 立脚하여 議題 第1項의 實踐을 위한 具體的 節次와 方法으로 4個項目에 合意할 것을 提議했다. 그것은 事業의 節次, 南北赤十字間에 使用될 書式의 制定, 事業機構 設置問題, 事業의 開始時期 등에 關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韓赤代表團의 立場과 提案은 赤十字 國際委員會가 오랫동안 펼쳐온 尋入事業原則과 節次에 充實하게 따른 것이었다.

이에 對해 北赤側은 議題 第1項 討議의 原則으로 다음과 같



은 5 個項을 提示했다.

- ①主體的 立場을 堅持한다.
- ②民主主義原則과 自由로운 原則을 徹底히 貫徹한다.
- ③南北間 互相 理解와 信賴를 두터이 하고 民族的 和睦과 大團結을 圖謀하는 原則을 堅持한다.
- ④赤十字 人道主義의 原則을 徹底히 堅持한다.
- ⑤民族的인 是 民族事業으로 推進해나가는 原則을 徹底히 具現한다.

北赤代表團은 이러한 5 個項의 原則下에 議題 第1項의 實踐方 案으로 4 個項을 提案하였다.

그 가운데서 첫째項이 이른바 「法律的 社会的 条件·環境 改善」問題에 관한것이고, 둘째項은 「赤十字了解·解說人員의 相對地域의 派遣」問題에 관한것이며, 셋째項은 「當事者 直接 自由往來」 問題에 관한것이고, 넷째項은 事業機構設置問題에 관한 것이다.

특히 議題 第1項 討議의 先決條件으로 北赤代表團이 내어 놓 은 이른바 「法律的 社会的 条件·環境 改善論」이란 「南韓側에 서 모든 法律的 社会的 장애를 除去하며, 當事者들과 協助者들이 民主主義的으로 自由롭게 意思를 表示하고 活動할 수 있는 条件 과 環境을 造成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 內容은 韓國이 첫째 反共法, 國家保安法등 反國家活動團束法들을 폐기하고, 둘째 反共團 體들을 解散하고, 셋째 共產主義者를 反對하는 政策과 教育을 포 기하라는 것이라고 說明되었다. 또 離散家族의 生死와 住所를

確認함에 있어서는 赤十字가 介入할 必要없이 当局者나 「赤十字  
了解解説人員」이 相對方地域을 自由롭게 다니면서 家族과 親戚을  
찾게 하고 또 이들 「了解解説人員」에게는 言論·出版·集會·通  
行등 모든 活動의 自由와 便宜를 保障하며 그들의 人身과 携帶品  
들에 대한 「不可侵權」을 認定하자고 主張하고도 있다.

다. 北韓側主張(法律的 社会的 条件·環境 改善要求)의 底意

北韓側이 赤十字本然의 事業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法律  
的 社会的 障礙除去」要求와 「赤十字了解 解説人員」의 自由往來  
를 主張하는 底意는 우리의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廢棄케 함으  
로써 南韓에서 合法的이고도 公開的인 方法으로 共產主義活動을  
벌일 수 있게 하여 소위 그들의 革命的 霧囂氣를 造成하고 革  
命勢力을 부식시키자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는 것으로 觀측된다.

北韓은 統一의 基本戰略으로서 6·25와 같은 武力手段에 의해  
南韓을 合併하는 方法과 南韓에서 이른바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達  
成하여 새로 樹立될 人民政權과 北韓政權을 統合하는 方法등 두  
가지 方式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現段階에서는 武力侵攻은 도  
저히 勝算이 없으므로 南韓革命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다고  
判斷한듯 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革命烽起를 可能케 하기 위해  
서는 南韓에서 共產主義活動이 許容되어야 하고 社会不安이 造成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때 北韓으로서는 共產勢力의 挑發과 破壞活動을 막고  
있는 우리의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이 그들의 革命遂行에 큰 障礙

가 되기 때문에 이를 廢棄케 함으로써 合法的으로 南韓에 共產主義를 부식시키고 社会교란 要因을 增大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韓國政府를 전복하겠다는 속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赤十字了解 解説人員」이 全國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共產主義宣傳을 하고 共產主義冊子를 뿌리며 適法한 赤十字 尋人事業이 아닌 一種의 소위 그들의 政治的 「群衆事業」을 벌이더라도 逮捕하지 말아야 한다는 論理이다. 이러한 그들의 主張은 離散家族과 親戚을 찾는다는 名分아래 共產主義活動을 合法的으로 수행하자는 계략임이 너무도 明白하다.

라. 北韓側主張에 대한 評價

첫째 北韓側의 이른바 「法律的 社会的 与件·環境改善」要求는 우리의 法秩序에 대한 內政干涉이며, 疑問의 余地도 없는 政治的 主張이 아닐수 없다 하겠다.

우리의 反共法과 反共体制은 赤十字事業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의 對內的인 政治問題이며 社会体制問題인 것이다.

赤十字人끼리의 對話에 政治的 問題를 介入시켜 學論한다는 것은 모든 政治性을 超越한다는 赤十字精神에도 正面으로 違背되는 것이며 離散家族의 人間的인 苦痛을 덜어주기 위한 人道的인 南北赤十字會談의 目的과도 根本的으로 背馳되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7.4 南北共同聲明의 基本精神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7·4 共同声明의 第1項 셋째 에는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의 大團結을 圖謀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이것은 彼此 相對方에 대한 「內政不干涉」原則과 「體制不干涉」原則을 밝힌 것이다. 南北은 分斷 4半世紀동안에 피차 判異한 思想과 理念 및 制度를 굳혀 왔다.

따라서 처음부터 思想과 制度를 따진다고 하면 對話가 成立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은 議論의 對象에서 일단 제쳐 놓자는 것이 7·4 共同声明의 基本精神인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自由主義理念과 反共體制에 대하여 曰可曰否한다는 것은 「思想과 理念 및 制度의 差異를 超越한다」는 共同声明과 南北對話의 基本精神에 위배되는 것으로 對話自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行爲이다.

세계 北韓側은 우리의 反共體制가 赤十字事業에 障礙要素가 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現實적으로 아무런 障礙要素가 되고 있지 않다.

南北赤十字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의 雙方代表가 法律的 社會的인 與件에 구애됨이 없이 自由로이 南北을 往來하며 會議를 거 듭하고 있다는 確證한 事實은 우리의 反共法이나 社會體制가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위한 事業進捗에도 아무런 障礙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明白히 立証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北韓側의 이러한 不當한 主張으로 말미아마 南北赤十字會談은 第6次 本會談에서 實質問題에 關係 아무런 進展도 보지 못

한채 그 幕을 내리게 되었다.

第7次 本會談에서 韓赤側은 秋夕을 前後해서 一定數의 秋夕省墓 訪問團을 組織해서 相對側 地域의 祖上墓所에 省墓를 하게 하자고 提議했으나 北赤側은 如前히 「法律的 社会的 与件·環境 改善」을 먼저 해야 된다고 되풀이 함으로써 韓赤의 提議를 拒否했던 것이다. 오늘날 모처럼 全國民의 期待 속에서 開催되었던 南北赤十字 會談이 이렇게 停滯되고 있는 것에는 北韓側의 不當한 主張의 되풀이에 의한 責任이 免할 수 있을 것이다.

### 3. 南北調節委員會의 進行狀況과 問題點

#### 가. 會議進行狀況

南北赤十字 予備會談이 進行되는 동안 朴正熙大統領은 韓半島에서 戰爭 再發의 危險을 없애고 그동안의 不安定한 平和를 永統的이고 安定된 平和로 바꾸며 나아가서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의 길을 트기 위해서는 北韓과의 사이에 人道的 赤十字會談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別個의 對話通路를 開拓해야만 되겠다는 決斷에 도달했다. 이같은 決斷에 따라 1972年 5月 2日부터 5日까지의 사이에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極秘裡에 平壤으로 派遣되었다.

李部長은 平壤에 滯留하는 동안 金日成과 그의 實弟이며 勞動黨 組織指導部長인 金英柱와 일련의 會談을 갖고 祖國의 疆土위에서 다시는 戰爭의 銃聲이 울리지 않게 하며,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궁극적으로 分斷祖國의 統一이라는 民族的 悲願을 成就하는

問題에 관해 허심탄회한 意見交換을 가졌다.

李部長의 平壤訪問에 대하여 北韓側은 당시 第2副首相 朴成哲은 金英柱의 代理形式으로 秘密裡에 서울로 보냈다.

朴成哲一行은 5月29日부터 6月1日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李部長과 일련의 會談을 가졌으며 朴大統領을 禮訪했다. 이러한 일련의 秘密交流訪問을 통해 南과 北은 歷史的인 「7·4南北共同聲明」의 發表에 合意하기에 이르렀다.

1972年7月4日 서울과 平壤에서 同時發表된 南北共同聲明의 基本精神과 趣旨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南과 北은 서로 侵略을 하지 않으며, 平和的方法에 의해 祖國의 統一을 追求하고, 그에 앞서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초월한 民族의 團結을 圖謀하기로 合意하고, 이를 ①自主統一 ②平和統一 ③民族의 大團結이라는 3個統一原則으로 集約해서 表示했다. 또한 南北은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關係를 改善하는 일이 무엇보다 至急하며, 이를 위해서는 不信과 誤解를 解消하고 理解와 信賴의 雰圍氣를 造成하는 것이 必要하며 이를 위한 措置로 다음과 같은 事項들에 合意했다.

①서로 相對方을 中傷誹謗하지 않으며 大小間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 措置를 취한다.

②南北間에 多方面的 諸般交流를 實施한다.

③南北赤十字會談이 早速히 成事되도록 積極協調한다.

④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間의 諸般問題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平壤사이에 直通電話를 架設 運營한다.

⑤合意事項의 實踐과 合意된 原則에 따라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李厚洛部長과 金英柱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한다.

이로써 南北間에는 南北調節委員會라는 常設的인 南北問題의 協議調整機構가 誕生되었다.

南北은 1972年 10月 12日 板問店에서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1次會議에 이어 1972年 11月 2日부터 4日까지 平壤에서 開催된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에서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議書」에 合意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의 骨格이 事實上 갖추어졌다.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가 규정한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으로서

①合意된 原則에 따라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決定하고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②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人士間의 広範한 政治的 交流를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決定하며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③南北間 經濟, 文化 및 社會的 交流와 協力을 實施하는 問題

④南北間의 緊張緩和와 軍事的 衝突防止 및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 問題를 協議決定하고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⑤對外活動에서 南北이 共同步調를 취하며 單一民族으로서 民族

的 功 效 를 선 양 하 는 問 題 를 協 議 決 定 하 며 그 實 踐 을 保 障 하 는 機 能 等 으 로 규 정 했 다 .

또 合 議 會 는 南 北 調 節 委 員 會 안 에 幹 事 會 議 를 두 고 , 또 政 治 , 軍 事 , 外 交 , 經 濟 , 文 化 의 5 個 分 科 委 員 會 를 두 되 그 設 置 는 南 北 調 節 委 員 會 의 事 業 이 진 척 되 는 데 따 라 遂 次 的 으 로 하 기 로 규 정 하 였 다 .

南 北 調 節 委 員 會 는 每 2 ~ 3 個 月 마 다 索 爾 和 平 壤 에 서 번 갈 아 열 것 과 幹 事 會 議 는 每 月 1 回 씩 板 門 店 에 서 갖 기 로 규 정 되 었 다 .

1972 年 11 月 29 日 索 爾 에 서 있 었 던 共 同 委 員 長 第 3 次 會 議 는 當 日 로 共 同 委 員 長 會 議 를 終 結 하 고 南 北 調 節 委 員 會 를 正 式 으 로 構 成 하 여 그 第 1 次 會 議 를 即 時 開 催 하 기 로 合 意 했 다 .

#### 나 . 双 方 의 基 本 立 場 의 對 立

南 北 調 節 委 第 1 次 會 議 는 去 歲 末 1972 年 11 月 29 , 30 日 兩 日 間 에 結 束 索 爾 에 서 開 幕 되 었 고 , 여 기 서 索 爾 側 은 南 北 關 係 의 改 善 은 相 互 理 解 와 信 賴 의 霧 困 氣 를 바 탕 으 로 하 여 漸 進 的 으 로 이 루 어 져 야 한 다 는 立 場 을 밝 히 고 그 러 기 위 해 서 우 선 相 異 한 理 念 制 度 로 말 미 암 은 摩 擦 要 因 이 比 較 的 적 은 經 濟 分 野 에 서 交 流 와 協 力 을 實 踐 에 옮 기 는 것 을 提 議 했 다 . 따 라 서 우 선 經 濟 分 科 委 員 會 를 設 置 發 足 시 키 는 것 을 提 議 하 고 , 아 울 러 調 節 委 員 會 의 運 營 細 則 을 早 速 히 制 定 하 고 幹 事 會 議 를 構 成 하 며 共 同 事 務 局 을 設 置 하 는 等 의 調 節 委 員 會 의 實 務 機 能 의 整 備 를 빨 리 매듭 짓 자 는 合 理 的 인 提 案 을 내 놓 았 다 .



이에 대해 平壤側은 經濟와 文化 「合作委員會」設置를 要求하고 調節委員會 實務機能 整備 問題에는 消極的인 姿勢로 나왔다.

이 會議에서는 實質問題에는 아무런 具體的 合意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1973年에 접어들면서 서울側의 재촉에 의하여 그나마 3月 10日에야 板門店에서 第1次 幹事會議가 열렸고, 3月 14日부터 16日까지 平壤에서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가 開催되었다.

이 第2次會議의 雰囲気은 1972年 中盤期の 南北間의 對話 雰圍氣가 팽팽하게 造成되었던 것과는 對照的으로 前例없이 冷却된 것이었다. 會議 直前 朴成哲 平壤側 共同委員長代理가 李厚洛 共同委員長을 禮訪한 자리에서 「우선 南北間에 信賴와 理解의 雰圍氣를 造成하자」는 李厚洛 共同委員長의 忠告에 대해 「軍事問題의 解決이 先決案件」이라고 主張하였다 우리側이 理解와 信賴의 基礎造成이 없이 大韓民國만이 一方的으로 軍事力을 弱化시켰다가 뜻하지 않았던 戰禍를 겪어야만 했던 6·25의 例를 들자, 朴成哲은 「過去는 過去, 現實은 現實」이라고 말함으로써, 南北對話를 硬化시키려는 北韓側 態度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第2次會議는 아무런 合意事項도 없이 끝났고 形式的인 共同發表文案에도 合意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會議는 1973年 6月 12日부터 14日까지 서울에서 開催되었고, 平壤側은 第2次會議때와 마찬가지로 軍備縮少 兵力減縮, 軍裝備導入의 中止, 美軍撤収, 平和協定締結等등 소위

軍事 5 個 項目의 先決解決, 그리고 政黨 社會團體等 各界各層의 人士로 構成되는 政治協商會議開催, 또한 政治, 軍事, 經濟, 文化, 外交 등 5 個分科委員會의 一括 設置 等の 提案을 되풀이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側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南北相互間에 不信과 誤解를 없애고 理解와 信賴의 새로운 南北關係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①雙方이 7·4 南北共同聲明을 「民族의 平和憲章」으로 誠實히 지켜나가야 하며

②人道的 赤十字會談을 하루바삐 成事시켜 離散家族들의 問題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며

③南北調節委員會의 經濟와 社會 文化分科委員會를 優先적으로 設置하여, 經濟分野에서 南北間에 広範한 交流를 實施함으로써 (이를테면, 經濟人 交流, 物質의 交流, 科學技術의 交流, 物資의 共同開發, 商品展示會의 交換 開催, 商社의 交換 常駐 등) 經濟的으로 共同利益을 追求하는 措置를 實踐에 옮기며, 社會 文化分野에서도 広範한 交流를 實施하여 (이를테면, 學術 文化 分野의 交流, 體育分野의 交流와 國際競技 單一팀의 構成, 映畵 및 舞台 藝術의 交流, 考古學과 民族史의 共同研究와 開發, 固有言語의 保存을 위한 研究, 各種 社會人士와 團體의 交流, 記者의 交流와 常駐, 書信 電話 電報 등 通信의 交流, 觀光分野의 交流 등) 社會的 共同利益과 便利를 追求하고 民族固有의 文化를 暢達하는 事業들을 實踐에 옮김으로써

④「서로가 서로의 사회를 서로에게 완전히開放할것」을 促求하는 提議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平壤側이 軍備縮少등 軍事問題先決과 5個分科委員會 同時 發足等 그들의 主張을 固執함으로써 아무런 進展도 보지 못한채 이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會議는 會議日程을 끝내고 말았다. 그러자 드디어 73年 8月 28日에 이르러서는 平壤側 共同委員長 金英柱의 이름으로 事實上 南北調節委員會를 通路로 하는 南北對話의 中斷이 一方的으로 宣言됨에 이르러고 만 것이다.

그동안 南北調節委가 一方的으로 中斷宣言되기까지의 會議過程에서 볼 수 있었던 主要한 北韓側 主張들에 關係 차례로 그 底意를 캐어보고 評價해 보려 한다.

다. 北韓側 主張들의 底意와 그것에 關係한 評價

(1) 軍縮 主張・平和協定 締結 主張

1973年 3月 14日에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에서 北韓 副首相 朴成哲이 提議한 소위 軍事 5個項目의 先決解決要求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南北間 武力增強 및 軍備競争을 中止할것
- ② 南北의 兵力을 相互 10万 또는 그以下를 減縮할것
- ③ 駐韓外國軍을 撤収시킬것
- ④ 外國으로부터 武器를 導入하지 말것
- ⑤ 以上の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南北間에 平和協定을 締結할것

이러한 北韓의 軍縮提議는 1954年 「제네바」會議에서 當時 北韓外相 南日이 처음 提起한 이후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는 主張으로서 그때 그때의 時代的 背景과 動機는 다르나 그 內容은 同一한 것을 되풀이 하고 있는것에 不過하다. 國內外 情勢가 主로 平和指向的 時期에 있을 때에 軍縮提議에 力點을 賦與하고 있고, 그중 強度가 제일 強한 것은 駐韓外國軍撤収로 集約된다.

또한 그들은 軍縮의 對象을 南北韓 正規軍과 裝備에만 局限시키고 있으며 軍縮을 平和協定の 內容으로 規定하고 있는 點이 特徵이라 하겠다.

이처럼 北韓이 南北對話에서 軍縮問題를 들고나온 것은 經濟交流와 社會文化分野交流를 먼저 實施하자고 提議한 韓國側 主張에 대한 응수라고 볼 수 있지만 過去와는 달리 이 軍事問題 5個項이 先決되지않는限 南北對話를 더 以上 進척시키지 못하겠다고 固執함으로써 事實上 南北對話를 停頓狀態에 몰아넣고 말았다.

그렇다면 北韓의 이러한 軍縮主張의 底意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첫째, 南北調節委員會를 膠着狀態로 빠뜨리는 同時에 그 責任을 우리側에 轉嫁시키겠다는 속셈임이 뻔하다.

当初 北韓은 南北對話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南韓社會에 소위 그들의 「革命氣風」이나 共產主義理念을 어느 程度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計劃하고, 따라서 그들의 赤化統一戰略遂行에 有利한 발판을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2年동안 南北對話를 推進해본 結果 그와같은 그들의 計算과 期待는 전혀 어긋났고 오히려 閉鎖社會인 北韓의 취약점만 더 들어났을뿐 아니라 韓國으로 하여금 10月維新으로 더욱 國力 培養을 促進하고 견고한 反共總和體制를 구축하게한 結果를 가져옴으로써 南北對話는 그들에게 보다는 南韓에 더 有利한 結果를 가져왔다고 判斷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南北對話를 깨뜨릴 수 있는 名分도 없으므로 南北對話는 계속하되 實質的인 事業의 進捗은 抑制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듯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現段階에서 實現할 수 없는 어려운 難問題들을 우선 提議함으로써 南韓으로 하여금 그를 拒絶케 하여, 南北對話의 膠着狀態에 대한 責任을 南韓에 轉嫁하면서 南北對話의 實質的인 進展을 저해하자는 計略을 行使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駐韓 UN軍의 解体를 促進시키려는 計略이다.

北韓은 赤化統一이라는 基本戰略을 遂行하는데 있어 駐韓UN軍의 駐屯을 가장 큰 障礙要素로 判斷하고 모든 努力을 駐韓UN軍 解体에 集中시키고 있으며 만약 駐韓 UN軍만 없다면 單獨으로 對南武力侵攻을 敢行할 수 있는 与件이 造成될 수 있다고 確信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와같은 目的下에 北韓은 73年度 UN總會를 앞두고 軍縮問題를 크게 浮刻시킴으로써 UN軍 解体를 骨子로 하고 있는 共產側 決議案의 通過를 위한 事前분위기를 造成하는 同時에 美國內의 反戰輿論에 便乘하여 對韓軍援의 削減을 誘導하는등

對外宣傳面의 效果를 노렸던 것으로 判斷된다.

세째, 北韓은 그들만이 平和指向的인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國際輿論을 誤導하여 外交活動에 있어서 有利한 高地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北韓은 그동안 對內的으로 金日成 偶像化와 強力한 社會統制 및 軍事力 增強一辺倒 爲主의 政策推進과 對外的으로는 極端的인 閉鎖性 및 「게릴라」輸出 그리고 對南關係에서는 休戰協定違反, 武裝「게릴라」南派 등으로 因해 國際적으로 「好戰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1974年5月25日字 「워싱턴·포스트」紙에 게재된 「잭·앤더슨」의 「가장 危險한 人物 - 金日成과 카다피」題下의 「칼럼」은 이러한 金日成의 好戰的 性格을 客觀的 立場에서 如實히 暴露하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軍縮主張을 함으로써 過去부터 줄곧 받아들인 「好戰的」이미지를 反轉시키고 自己들이 南韓보다도 더 平和指向的이라는 人상을 國際社會에 投射함으로써 國際的 地位의 向上을 노렸던 것이 틀림없다.

네째, 南北間의 힘의 均衡을 깨뜨림으로써 南韓에 힘의 真空狀態를 招來케 하며 武力赤化統一의 條件을 造成하려는 것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10萬減軍問題………北韓이 南北韓兵力(正規軍)을 10萬以下로 減軍하자고 提議하게된 그 이면에는 그들의 방대한 民兵組織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위 4大軍事路線을 수행하여온 北韓은 表面上의 正規軍은 47萬名에 불과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武力을

가진 140 万의 勞農赤衛隊와 70 万의 붉은 青年近衛隊가 있는데, 이들은 週 17 時間씩의 戰鬪訓練뿐만 아니라 어느 때라도 총을 들고 共用火器로 武装하여 正規軍으로 出動할 수 있게 訓練組織되어 있다.

이러한 正規軍 못지않는 民兵組織은 軍縮의 對象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들은 軍縮으로 正規軍을 약간 줄이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南韓의 軍事力은 현저하게 弱化될 것이다. 즉 南韓에는 郷土豫備軍이 編成되어 있으나 이들에게는 칼빈총도 제대로 配當되어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個人的 生業을 優先적으로 考慮하여 運營되고 있는 実情이다. 때문에 北韓側의 正規軍 10 万 減軍主張은 南韓의 防衛力만을 一方的으로 弱化시키고 그들의 軍事的 優位를 維持하려는 術策에 不遇한 것이다.

ii) 外國으로 부터의 武器搬入 禁止問題……北韓은 이미 4 大軍事路線에 의한 单独戰爭遂行能力을 具備하였을 뿐만 아니라 日帝時에 남은 重工業施設을 軍需産業으로 轉用 繼續 發展시켜, 現在 戰鬪機를 除外한 모든 武器의 自給自足体制를 갖추고 있다. 이에 反해 南韓은 小統 한자루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実情이다. 따라서 이 主張 역시 南韓의 軍事的 弱化를 노린 主張이라 아니 할 수 없다.

iii) 美軍撤収問題……北韓은 地理적으로 中共 및 蘇聯과 바로 隣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軍事同盟을 締結하고 있다. 한편 南韓은 美國과 防衛條約을 締結하고 있긴 하여도 美國과의 距

離는 太平洋을 사이에 끼고 있다. 이러한 地理學的 特殊性을 考慮해 볼 때 美軍撤収는 韓國의 安全만을 全적으로 위태롭게 하게 된다.

iv) 平和協定締結問題……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北韓의 軍縮主張이 軍縮을 平和協定の 內容으로 規定하고 있는 點이 特徵이라 하겠다. 그런가 하면 또 金日成은 1971年8月10日의 「뉴욕·타임스」紙의 「레스턴」記者와의 會見 및 1972年1月10日 日本 「요미우리」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韓國戰에서 이루어진 休戰協定을 終結시키고 平和協定으로 代替해야 한다」고도 主張했다.

이러한 北韓의 主張의 底意는 첫째로는 休戰協定을 無効化하고 그 代身 南北韓間에 平和協定을 締結할 경우 休戰協定소멸에 따른 協定当事者인 UN軍의 自動解体를 노렸다고 볼 수가 있고, 둘째로는 對外的인 國際輿論에 있어서 그들의 平和愛護 「이미지」를 浮刻시키고 아울러 南韓國民의 反共意識을 해이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思想과 理念, 制度가 極端的으로 相異하고 그 사이에 아직 不信이 깊은 現在의 南北狀況下에서는 平和協定을 맺는다는 것은 아무런 實効性이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잘 지키지 않을 때는 相互 不信이 더욱 深化되고 새로운 마찰요인이 發生하게 되어 모처럼 門이 열린 南北對話를 저해하는 結果를 가져오기만 쉽다. 그러므로 우리가 平和, 善隣을 基調로 하는 6.23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宣言하였듯이 北韓도 다시는 南侵하지 않는다는 確



실한 証拠를 行動으로 実証하여 平和協定締結의 実効性있는 분위기를 먼저 造成해야 할것이다. 現在로서는 實現可能性이 없을뿐 아니라 또한 南韓의 安保만을 害칠 것이 明白한 軍縮을 平和協定の 内容으로 規定하자는 北韓의 平和協定締結主張은 平和를 가장하여 韓半島의 平和를 威脅하고 우리의 安保를 破壞하는 것이므로 不當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現在로서는 可能的한 問題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結 論〕 - 南北韓이 相互信賴의 바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現在の 与件下에서 軍縮問題를 다룬다는 것은 時期尚早며 만약 우리가 受諾할 경우 그것은 南韓軍事力の 一方的 弱化만을 招來하여 韓半島의 平和는 破壞될 것이다.

또한 실령 減軍에 同意를 한다해도 現在와 같은 与件下에서는 減軍을 監視할만한 機構가 없고 또 그것을 새로 만든다해도 休戰 監視委員團에 대한 경우처럼 자기들 비위에 안맞는다고 그 活動을 저해한다면 그 任務는 결코 完遂될수 없을 것이 너무도 뻔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軍縮이 갖는 價值性에 대해서 根本적으로 否定的 態度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南北韓이 戰爭이 아닌 平和的 方法에 의해 統一을 實現하려면 軍縮問題는 언젠가 考慮해야만 할 問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狀況을 造成하고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선 南北韓間에 主要因이 적은 問題인 非政治·非軍事 分野의 交流를 먼저 實施하여 相互理解와 信賴의 바탕을 마련한 後 以上の 軍事問題를 해결하는

것이 理想的인 南北關係 改善의 方向이며 順理인 것이다. 즉 南北韓間에 信賴와 民族의 同質性이 회복되어 平和的方法에 의한 統一政府 樹立의 寺光이 비치는 統一 一步直前の 狀況下에서는 軍縮도 可能하다는 것이 우리의 基本立場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軍縮問題는 南北韓이 処해있는 現實을 볼 때 南北韓의 自決的인 单独對話 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우며 韓半島에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周辺 強大國들의 協力이 있을때만이 바로는 完全解決이 可能한 것임을 考慮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다.

## (2) 政治協商會議 또는 大民族會議 召集 主張

i) 経緯와 内容..... 지난 1973年 6月 23日 朴正熙大統領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이 發表되자 10時間뒤 金日成은 「체코」共産黨總秘書 「후사크」一行을 환영하는 연설을 통해서 統一問題에 관한 다섯가지 事項을 提案한 가운데 「南北各界各層人民들과 政黨社會團體代表들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 召集을 主張하였다.

그런데 이 大民族會議는 北韓이 解放以後 지금까지 되풀이해온 南北政治協商論을 變形한것에 不過하다.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會議에서도 「政治協商會議」 開催가 되풀이 主張되고 있었고, 그 直前の 73年 4月 16日에 金日成은 平壤을 訪問한 「시하누크」를 환영하는 群衆大會에서 同一한 提議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6.23宣言 直後에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은 「大民族會議」를 提案하기에 이르러 것이다.

解放直後부터 6.25 直前까지에 그들이 提議하였던 政治協商論 가

운데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는, 1948年 3月 25日에 「유엔」의 南北韓總選舉決議를 反對하면서 同年 4月 14日에 平壤에서 「全朝鮮 政党·社会团体 代表者會議」를 開催할것을 提議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첫번째의 南北政治協商 提議였고, 둘째는, 1950年 6月 7日에 「平和統一의 모든 必要한 條件과 手段을 討議決定하기 위해 南北 政党·社会团体 代表者會議를 海州 또는 開城에서 6月 15 ~ 17日에 걸쳐 召集할것」을 提議해 왔었는데 이같은 提議가 있는지 불과 18日뒤인 6月 25日 北韓共産党은 不法南侵을 敢行했던 것으로 平和統一을 위한 政治協商提議를 6.25의 前夜에 煙幕戰術에 利用했던 것이다.

ii) 底意………첫째, 우리의 6.23 宣言이 內外的으로 肯定的 反應을 불러 일으키자 자기들의 守勢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宣傳手段으로 聯邦制와 더불어 大民族會議를 提議하여 우리가 統一問題를 「유엔」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逆宣傳하며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民族主体意識에 立脚해서 統一努力을 自主的으로 경주하고 있다는 民族主義的 立場을 부각시키려는 意圖에서 나온것이 분명하다.

둘째,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南北對話가 北韓側이 企圖하던대로 進展되지 않기때문에 그를 교착상태에 빠트리려는 底意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南北調節委員會처럼 組織的인 專門家가 아닌 非組織的이고 非專門家인 民間人士들을 無秩序하게 參與시키는 政治協商會議를 통해서 그들의 目的을 達成하려는 속셈에서 大民族會議와 같은 別個의 協議體 構成을 提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만약 그러한 別個의 協議體가 構成될 경우 北韓은 소위 唯一體制이기 때문에 어떠한 民間代表가 參與하더라도 行動統一을 期할 수 있지만, 多樣性과 自由를 尊重하는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虛點을 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그들의 宣傳에 說得當하여 南韓의 國論이 分裂되기 쉽다고 그들은 判斷하고 있다. 北韓側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國論의 分裂을 助長하려는 것임에 틀림없다.

세계, 만일 우리가 그들의 提議에 應할 경우 그들은 이를 통해 소위 「合作」에 의한 統一戰線을 形成하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中國에서의 「國共合作」이나 東歐 共產國家에서의 「左右聯立協商」과 같은 소위 合作에 의한 統一戰線 形成을 그들은 꿈꾸고 있을 것이다. 1966年 10月 金日成이 소위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南朝鮮革命의 統一戰線은 反美, 救國 統一戰線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明白한 証拠이다.

그러므로 北韓의 이러한 主張은 분명히 소위 上層統一戰線을 下層統一戰線과 함께 形成하여 有機的으로 活用하려는 底意에서 나온 것임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Ⅱ) 評價……첫째, 7·4南北共同声明에 違背되는 主張이다.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成就하자는 7·4南北共同声明에 合意하고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하여 本格的인 南北對話를 시작한지 불과 1年도 못되어 調節委員會와는 別도로 또 다른 協議體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7·4共同声明의 精神을 스스로 위배하는 處事라 아닐 할 수 없다.

둘째, 政治協商이나 大民族會議를 開催해야만 南北間의 和解가 잘 된다는 아무런 保障도 없다. 現在 進行中인 組織的인 專門家들 사이의 南北對話에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問題들이 南北의 政党, 社会团体 및 個別的 人士 사이의 對話에서 解決될 수 있다는 아무런 保障도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한 混亂과 異見만 統出할 것임은 너무나도 두려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③ 5 個分科委員會 同時設置 主張

1) 底意……첫째, 北韓은 全般的인 南北交流를 實施할 수 있는 基盤이 갖추어져 있지않은 現時点에서 實現不可能한 提議를 함으로써 南北對話를 교착상태에 빠트리어 時間을 벌자는 意圖인듯 싶자. 둘째,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提案을 내놓아 우리로 하여금 이를 拒否케 함으로써 對話不振의 責任을 우리側에 轉嫁시켜 韓國에 대한 國際的 輿論을 惡化시키자는 것이다. 셋째, 韓國問題의 真相을 모르는 第三者가 얼핏보기에는 그럴 듯한 提案을 함으로써 自己들만이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해서 努力하고 있는양 對外的으로 宣傳하려는데 그底意를 두고 있다.

ii) 評價……첫째, 政治·軍事·外交 등의 分野는 가장 對立 要因과 摩擦要因이 많은 分野로서 이에 관계되는 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먼저 相互信賴의 基礎과 緊張緩和의 雰圍氣 造成이 絶對 必要하다. 그런데 아직 相互信賴의 발판이 虛弱한 現段階에서 5個分科委員會를 同時에 設置해서 政治性이 介在된 어려운 問題들을 論議의 焦點으로 提起한다면 紛争만 生길뿐 아무런 合意에도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明白하다.

둘째, 北韓側의 이러한 主張은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 ③(다)項 「各分科委員會는 南北調節委員會 事業이 進捗되는데 따라 設置한다」는 規定에 違背됨으로 不當하다.

#### ④ 聯邦制 實施 主張

1) 經緯와 內容……北韓이 南北聯邦制를 처음으로 提案한 것은 4·19 革命後 韓國에서 民主黨政權이 樹立되고 平和統一論爭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1960年의 8·15 紀念式에서 行한 金日成演說에서 비롯된다. 同演說에서 그는 統一方案으로서

첫째, 外勢干涉없는 南北總選舉 實施

둘째, 南北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聯邦制實施(南北聯邦制는 南北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獨自的 活動을 保障하는 同時에 兩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會議를 組織하여 主로 南北의 經濟, 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

셋째, 上記提案에 同意치 않으면 南北의 産業界代表로 構成되는

經濟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提案했던 것이다.

이같은 聯邦制提案은 그 후 韓國의 5·16革命으로 因한 情勢  
安定과 함께 北韓 内部의 戰爭準備政策으로 事實上 中斷되었다가  
越南戰의 終戰展望이 두렷해진 1969年 8·15紀念式에서 行한  
金一의 演說에서 다시 提起되어 간헐적으로 主張해 오다가 그후  
美·蘇의 接近 및 美·中共의 和解무드가 造成되기 시작한 1971  
年 4月 12日 北韓外相 許淡이 發表한 8個項目의 統一方案 가운데  
包含되는等 同一한 內容이 되풀이 되었다.

그리고 南北對話와 함께 公式的으로 聯邦制案을 提示한 것은  
1972年 9月 17日 金日成의 日本「마이니찌」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였다. 그후 北韓은 南北對話가 本軌道에 들어감에 따라 第2,  
第3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 南北間에 軍事對峙狀態解消問題를 들고  
나왔다. 이리하여 南北調節委員會에서 南韓側의 經濟, 文化分野의  
交流先行 主張 對 北韓側의 軍事問題 優先解決 主張이 서로 맞서  
對話는 停頓狀態에 들어갔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朴正熙大統領의  
6·23 宣言이 發表되자 金日成은 同日 저녁 8時 「후사크」 체  
코共産黨總秘書를 위한 歡迎演說에서 다음과 같은 이른바 5大綱  
領을 提議했던 것이다.

- ㄱ. 軍事對峙狀態 解消
- ㄴ.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 實施
- ㄷ. 大民族會議 召集
- ㄹ. 高麗聯邦制 實施

㉑. 高麗聯邦國号下에 U N 單一加入

以上 1960 年以後 現在까지 사이에 北韓이 提議한 聯邦制는 内容上으로는 그 어느것이나 同一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南北對話以前과 以後의 聯邦制提議에 있어 몇가지 特異點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對話以前에는 그들의 諸般統一方案中 聯邦制를 하나의 要素로 包攝시켜 어느 하나를 摺一한다는 方式이었는데, 對話以後에는 이를 止揚하고 다른 統一方案과 不可分하게 關聯시켜 提議하고 있는 點이다.

둘째, 對話以前에는 主로 宣傳 및 大衆的 鬭爭課題로 提起한데 비해 對話以後에는 宣傳과 大衆的鬭爭課題로서는 勿論 南北間對話의 主題로서 올려놓고 있는 點이다.

셋째, 對話以前에는 聯邦制實施에 하등의 前提條件을 붙이지 않았는데 反해 오늘날에는 南北間的 軍事問題解決을 先行條件으로 들고 있다는 點이다.

㉒) 底意……… 첫째, 駐韓美軍撤収를 비롯한 韓美의 共同防衛 및 協力關係를 弱化내지 斷絶시키려는 點이다.

둘째, 南韓內의 廣範한 階層과 統一戰線을 形成하여 궁극적으로 는 소위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達成하려는 속셈이다.

셋째, 韓國의 反共體制 즉 共產主義의 浸透를 막는 法的, 社會的 規制와 國民의 反共意識을 海이시키려는 點이다.

넷째, 國際的인 現狀固定化추세에 被動的立場을 取하면서 對內外



宣傳의 手段으로 利用해가며 끝내는 南北分斷 永久化 責任을 南韓에 轉嫁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北韓内部의 住民들을 教養하고 結束시키는等 그들의 对内 政策遂行에 有用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海外僑胞에 대한 浸透工作에 利用하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丑) 評價………첫째, 北韓이 主張하는 聯邦制의 概念은 聯邦 (federation) 이라기 보다는 國家聯合 (Confederation) 의 性格이 濃厚하다. 이는 北韓主張의 內容으로 보아서도 그러하거나와 또한 東獨의 「울부리트」가 西獨에 대해 國家聯合案을 提示했던 1956年 以後에 北韓이 聯邦制를 提議했던 事實로 미루어 보아도 東獨의 國家聯合案을 模榜한 것으로 推測된다. 둘째, 北韓이 主張하는 聯邦制의 內容이 極히 빈약하다. 그것은 다만 聯邦制의 國號와 必要性 및 成果에 대해서만 장황한 說明을 늘어놓고 있음에 불과하다. 이처럼 概念이 不透明하고 內容도 없는 것을 主張하는 理由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聯邦制를 提議하는 그 自体에서 對内外宣傳 및 心理戰面의 效果를 노리고 있는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셋째, 現實的인 南北關係要件은 聯邦制를 受容할 素地를 全然 갖추지 않고 있다. 歴史的으로 볼때 聯邦은 構成國間에 緊張이 排除되며 相互 協助的인 雰圍氣가 造成될때 비로서 그 成立이 可能했던 事實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南北現實은 軍事的으로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아직도 高度의 緊張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하에서 同一한 國家目標追求를 前提로 하는 聯邦構成은 전혀 不可能한 것이다.

⑤ U N 同時加入 反對 主張

i) 內容.....朴正熙大統領의 6.23 宣言이 發表된 直後에 發表된 金日成의 소위 5大綱領 가운데 「高麗聯邦國號下에 U N 單一加入」이 包含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다.. 그 자리에서 金日成은 「우리는 U N 에도 北과 南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主張하며, 나라의 統一이 이루어지기 前에 U N 에 들어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聯邦制라도 實現된 다음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를 가지고 하나의 國家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한다」는 말을 했다. 이 發言은 6月23日 朴正熙大統領이 「U N 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北韓이 우리와 함께 U N 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內容의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宣言한데 대한 北韓側의 첫 反應이었다.

要컨대 南北韓의 U N 同時加入은 祖國의 分斷을 永久化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反對한다는 것이 北韓側의 論理이다.

ii) 背景과 底意.....北韓은 오래前부터 國際적인 孤獨에서 벗어나 「두개의 韓國」을 既定事實化시키고자 여러 나라로부터 承認獲得에 努力하는 한편, 여러 國際機構의 加入을 위해 全外交力量을 기우려 왔다. 이를테면 1949年1月과 1951年12月 두번에 걸쳐 우리가 U N 加入을 申請했을 때 北韓도 바로 우리 뒤를 따라 1949年2月과 1952年1月 두차례에 걸쳐 U N 加入을 申請

한 일이 있다. 그러나 孤立에서 벗어나려는 그들의 對外的 努力은 아무런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1970年代에 접어들어 國際情勢가 平和共存의 추세로 激變하게 되자 그들은 國際潮流에 便乘하여 지난 1973年 4月 28日에 I.P.U( 國際議員聯盟 )에, 그리고 5月 17日에는 W.H.O( 世界保健機構 )에 7月 20日에는 「운크타드」( U N 貿易開發會議 )에 차례로 加入하게 되었다.

이러한 一連의 國際機構 및 U N 傘下機構에의 加入을 契機로 마침내는 U N 에 「음서버」代表部까지 設置하였다.

이와같이 北韓은 지금까지 두번씩이나 U N 에 加入申請을 내었고 또 U N 「음서버」代表部 設置까지 完了하는 등 實際로는 U N 加入效果를 노리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南北韓의 U N 同時加入을 反對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二律背反的인 外交政策의 底意는 果然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첫째, 北韓은 實際 內面的으로 「두개의 韓國」政策을 追求하면서 外形上으로는 이를 음폐하고 자기들만이 「하나의 韓國」즉 統一指向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假裝하려는 속셈이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北韓이 우리의 U N 同時加入主張은 分斷을 永久化시키는 主張이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은 賊反荷杖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對內外宣傳에 있어서 北韓의 實際政策 方向을 잘 모르는 南韓國民들이나 外國사람들에게 民族主義로 분장한 그들의 聯邦制下에서의 單一 U N 加入主

張이 마치 統一指向의 政策인양 宣傳됨으로써 祖國統一을 渴望하는 5千萬民族의 感傷的 統一念願을 刺戟하여 分斷固定化의 責任을 우리에게 轉嫁시키면서 對外的 支持를 얻자는데 그 目的이 있음이 分明하다.

둘째, 그들은 UN에 加入하지 않고도 UN에 加入한 效果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現在의 地位를 繼續 確保하면서 對UN 宣傳活動을 展開하고 同時에 UN에 加入함으로써 派生되는 平和守護義務等의 制約을 받지 않으려 하는데도 또한 底意의 一端을 두고 있음이 뻔하다.

丙) 評價..... 첫째, 南北韓의 UN 同時加入이 바로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은 勿論 祖國分斷의 固定化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6.23 宣言은 閉鎖的인 北韓을 國際社會에 參與시켜 그들의 社會를 開放化 내지 自由化 시킴으로써 그들이 하여금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國際秩序와 平和를 構築하려는 우리들의 努力에 順應케 하기 위한 實質的인 平和統一接近策인 것이다. 또한 6.23 宣言 末尾에 「이러한 措置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留保宣言을 한 것은 祖國의 永久分斷을 排除하고 「하나의 韓國」을 指向하는 우리의 強力한 統一意志의 表示이기도 하다.

둘째, 南北韓이 UN에 同時加入한 後라도 祖國統一만 되면 UN 代表權을 單一化하는 것은 극히 간단한 節次에 불과한 問題이다. UN 加入의 特殊形態를 몇가지 實証的으로 들어보면 다음

과 같다.

- ㄱ. 「하나의 國家, 세계의 代表」型 (蘇聯, 「우크라이나」, 白  
「러시아」)
- ㄴ. 「하나의 民族, 두개의 國家」型 (東, 西獨)
- ㄷ. 「두개의 國家가 合併하여 代表權을 單一化한」型 (「탄가  
니카」와 「잔지바르」가 64年 4월에 「탄자니아」聯合  
共和國으로)
- ㄹ. 「한 國家가 分裂하여 代表權이 두개로 된」型 (싱가폴)  
이 65年 8월에 「말레이시아」聯邦으로부터 分離獨立)
- ㅁ. 「두개의 國家, 두개의 代表權」이 「하나의 國家, 하나  
의 代表權」으로 되었다가, 다시 「두개의 國家, 두개의  
代表權으로 分離된」型 (「에집트」와 「시리아」)

以上과 같은 UN加入의 여러가지 實證的인 前例로 볼 때  
UN에 加入하여 그 代表權을 얻는다는 것이 곧 國家形態의 永  
久不變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加入한 國家의 事情에 따라 열  
마든지 合併 또는 分離할 수 있는 것이다.

#### 4. 北韓側의 對話中斷宣言과 韓國側의 撤回要求

1973年 8月 28日 下午 6時 北韓은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共同  
委員長 金英柱의 이름으로 事實上 南北調節委員會를 通路로 하는  
南北對話의 中斷을 一方的으로 宣言하는 것으로 解釈되는 長文의  
聲明을 發表했다. 이 聲明은 한마디로 말해서 大韓民國의 體制가

北韓의 共產主義體制 쪽으로 同質化되기 前에는 對話를 다시는 않겠  
다는 그들의 底意를 스스로 露出한 것으로 밖에는 評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北韓側의 一方的인 對話中斷宣言에 대하여 李厚洛 서울側  
共同委員長은 8月29日 上午10時 緊急記者會見을 갖고 北韓當局  
者들에게 「다시 한번」 理性으로 되돌아가 7·4 南北共同聲明의  
基本精神을 난폭하게 유린한 8月28日字 聲明을 즉시 撤回하라」  
고 強力히 促求했다.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北韓側의 8·28 聲明이 7·4 南北共同聲明  
의 基本精神에 正面으로 背馳되는 것임을, 具體적인 事例를 들어  
조목 조목 論하고, 果然 누가 7·4 共同聲明의 精神을 위배했고  
果然 누가 南北間의 合意事項을 위배했으며 또 果然 누가 南北  
關係改善의 具體化를 가로막았는가고 反問하면서 「平和를 渴望하  
고 統一을 念願하는 民族의 輿望을 外面하고 그 어느 누구든지  
7·4 共同聲明의 精神을 破壞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民族叛逆行  
爲로서 歷史의 審判을 받게 될」 것이라고 嚴重히 警告했다.

그러면서 또한 「大韓民國은 어떠한 難關이 있더라도 7·4 共  
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誠實과 忍耐로 南北對話를 계속 이끌  
어 감으로써 거래의 期待에 부응하겠다는 굳은 決意에 추호의  
變함이 없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 5. 南北對話의 懸案問題와 南北關係 改善努力 -

(對話再開과 不可侵協定締結로)

不幸하게도 73年 8·28 聲明으로 南北對話의 一時的 中斷이 생기자 緊張狀態는 또다시 야기되어 가고 있다. 이를테면 北韓은 西海 5개 島嶼 領有權主張, 漁船포격 및 拿捕등 軍事的인 挑發과 好戰的인 비방 중상 그리고 革命선동등을 일삼아 戰爭무드를 高潮시키고 北韓住民들에게 戰爭의 不可避性을 強調하고 있는 實情이다.

말하자면 南北對話 中斷 以後 北韓은 大韓民國의 不可侵協定 締結提議를 通한 平和共存提議를 正面으로 拒否하고 赤化武力統一을 위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더 광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南韓에 소위 統一戰線을 구축하여 反政府·反體制鬭爭을 선동하고 있다.

金日成은 이제 7·4 聲明 以前으로 事態는 되돌아 갔다고 公言하고 있다. 이것은 南北對話로 실상 그들에게는 赤化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術策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對話로는 目的達成이 不可能하다는 것으로 判斷하고 이제는 그것을 팽개치고 말았다는 証拠라고 말할 수 가 있다. 하지만 國內外에서 對話破壞의 責任을 져야 하니까 責任轉嫁의 口實만을 꼭꼭 챙기고 있다.

매우 相異한 理念과 體制를 가진 分斷國家가 平和的인 再統一을 實現한 先例는 솔직히 말해 歷史上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것도 事實이다.

그와같은 再統一의 課業을 平和的 方法으로 成功시키기 위해서는 時間을 要하며 또 段階的이고 漸進的인 接近이 必要한 것이다. 「全部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식의 北韓側 接近方法보다 「쉬운 것부터 한다」는 南韓側의 機能的 接近方法이 多少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現狀을 固定시키지 않고 相對方에 대한 영향력을 기도할 수 있는 보다 可能性있는 代案이라고 말할 수 가 있을 것이다.

政治적으로 그러한 南北對話를 北韓이 韓國의 開放政治體制에 대한 浸透目的으로 利用하려 한데 대해 韓國도 北韓의 閉鎖社會를 自由化하는 機會로 그것을 追求하고 있었음은 틀림없는 일이다.

여하간 南北對話의 結果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北韓으로 하여금 南侵의 無益性을 說得시키는 것에 있다고도 말할 수 가 있다. 南北對話가 中斷된 이 時点에서의 懸案問題는 南北間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우선 韓國이 提議하는 不可侵協定 締結을 受諾케 하기 위하여 中斷된 對話를 다시 再開하기 위한 誠實한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北韓側의 非現實的이고 可能性없는 對話條件을 現實的이고 合理的이며 可能性있는 對話條件으로 바꾸도록 誘導하고 一方的인 對話中斷宣言을 撤回 하도록 繼續 追求하고, 특히 南北韓의 UN 同時加入을 實現시켜 北韓을 UN 憲章秩序와 國際社會에 編入시킴으로써 國際的 現實感覺 속에서 南北對話의 必要性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南北對話의 膠着打開과 進展을 外部로부터